七分之儀

경기도박물관 열에
초상화 일곱
기획전

Gyeonggi Province Museum SEVEN
Special Exhibition OUT OF
TEN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01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02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03 유수 초상 柳綏肖像
04 편지 書簡
05 월하취적도 月下吹笛圖
06 연행별장 燕行別章
07 화보 畵譜
08 교지 敎旨
09 김육 초상 金堉肖像
10 김육 초상 金堉肖像
11 김육 초상 金堉肖像
12 장만 초상 張晩肖像
13 장만 초상 張晩肖像
14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15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16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17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18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19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20 홍경주 초상 洪景舟肖像
21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 洪景舟肖像油紙草本
22 임우 초상 林祐肖像
23 이돈상 초상 李敦相肖像
24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 李敦肖像相油紙草本
25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 李敦相肖像上綃墨畵
26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27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28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29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30 초상 肖像
31 초상 肖像
32 기계 유씨 초상 杞溪兪氏肖像

경기도박물관 열에
초상화 일곱
기획전

Gyeonggi Province Museum *SEVEN*
Special Exhibition *OUT OF*
TEN

경 기 도 박 물 관
GYEONGGI PROVINCE MUSEUM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기획전
《열에 일곱》

총괄 : 김기섭 | 경기도박물관장
기획편집 : 정윤회
글 : 정미숙 정윤회 이영은
영문 번역 : 곽재은
한문 번역 감수 : 김기섭, 장유승
교정 : 천혜인
공간 사진 : 정영돈
디자인 : 김뉴
제책 : 효성문화

발행인 : 주홍미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발행일 : 2022년 12월 16일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ISBN 978-89-999-0450-9

© 2022 경기도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 및 법적 권리는 경기도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Gyeonggi Province Museum Special Exhibition
SEVEN OUT OF TEN

Supervised by : Kim Kiseob | Director, Gyeonggi Province Museum
Editor : Jung Yunhoe
Contributions : Lee Young Eun, Jung Mi Sook, Jung Yunhoe
Korean-English translation : Kwak Jae Eun
Chinese-Korean translation review : Kim Kiseob, Jang Yoo-seung
Proofreading : Chun Hyein
Photography : Jung Youngdon
Design : Kimmnew
Printing and Binding : Hyosung Print

Publisher : Ju Hong Mi | Acting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ublished on : December 16, 2022
Published by : Gyeonggi Province Museum

ISBN 978-89-999-0450-9

© 2022 by Gyeonggi Province Musuem and author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Gyeonggi Province Museum.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진행한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열에 일곱》의 도록이다.
2. 이 책에 실린 도판의 저작권은 경기도박물관에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도판 목록에서 별도로 밝혔다.
3. 도판 정보는 유물 이름, 시대, 작가, 규격, 기증자, 지정사항, 소장번호(소장처)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알 수 없는 정보는 표기하지 않았다.
4. 유물의 크기는 세로, 가로, 높이의 순서로 표기하였으며 단위는 cm이다.

목차

08 발간사 | 김기섭 Foreword | Kim Kiseob
11 들어가며 Prologue

22 1. 칠분七分의 구현 Two Portraits of Jo Youngbok
34 칼럼 1. 〈조영복 초상〉 2점 함께 보기
36 2. 조영석과 진재해 Two Masters
56 3. 한 사람, 두 모습 Dimensions of Identity
96 칼럼 2. 초상화 속 복식 읽기
100 4. 각기 다른 얼굴, 서로 다른 빛깔 Visualization of Personality
142 칼럼 3.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기증과 보존
146 5. 오늘, 우리의 초상 Portraits Today

155 나가며 Epilogue
156 논고: 서신지소棲神之所-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에 관하여 | 정윤회
Essay: The Place for the Soul-The Portrait Collection of Gyeonggi Province Museum | Jung Yunhoe

166 도판 목록 List of Plates

발간사 Foreword

경기도박물관에는 보물급 국가지정문화재가 꽤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초상화인데, 모두 경기도의 유수한 가문 종중宗中이 보관하던 유품을 기증·기탁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은 기증받은 초상화의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 초상화 속 인물의 생애 및 이력 등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문화재 신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경기도박물관은 한국 초상화 백여 점 이상을 소장한 독보적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초상화는 그려진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노라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박물관의 기획전 《열에 일곱》은 조선시대 초상화에 담긴 화가의 예술세계와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나란히 조명한 전시입니다. 각기 다른 시기 또는 각기 다른 이가 그린 한 인물의 초상을 응시하노라니 그린 이와 그려진 이의 복잡한 심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이번 전시는 한 인물을 그린 여러 초상화를 함께 모아 소개한 점이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초상화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각기 다른 일부七分를 공교하게 잡아내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보물 4점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8점을 포함하여 30점의 초상화를 소개하였으니 자세히 살피시며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만끽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귀한 문화유산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의껏 전시회를 개최하고 운영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김기섭

見於文字者 有七分之心
繪於丹靑者 有七分之儀

– 張繹, 『二程全書』 附錄 「祭文」 中

문자에 드러난 것에는
칠분의 마음이 있고,
그림으로 그려진 것에는
칠분의 용모가 있다.

- 장역, 『이정전서』 부록 「제문」 중

들어가며

'열에 일곱'을 의미하는 칠분七分이라는 말은 예부터 초상화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이는 장역張繹이 송나라의 유학자 정이程頤의 제문에서 초상화를 가리키며 "칠분의 용모가 있다有七分之儀"고 말한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뛰어난 초상화는 사람의 한 부분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한 장의 그림은 사람의 일부, 곧 '열에 일곱' 만을 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박물관 기획전 《열에 일곱七分之儀》에서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같은 인물을 그린 다른 초상화들을 한자리에서 소개합니다. 각각의 초상화는 같은 대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물을 그려냅니다. 이는 곧 모든 초상화가 한 사람의 서로 다른 마음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시에 소개된 초상화들을 마주하며, 선인들의 뜻과 마음이 다채롭게 그림 속에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logue

From ancient times, chilbun七分, a Sino-Korean word meaning "seven out of ten" has been an alternative name for portraiture. It was derived from Zhang Yi's memorial address dedicated to Cheng Yi, a leading philosopher of Neo-Confucianism in the Song dynasty, in which he wrote that Cheng's portrait "depicted seven tenths of his appearance." Excellent portraits represent a person accurately and beautifully. Nevertheless, a painting can portray only some parts, namely "seven out of ten" of the person.

Gyeonggi Province Museum's special exhibition, *SEVEN OUT OF TEN*, presents a variety of portraits of the same figures, mainly selected from the museum's collection. These paintings describe the same individuals in different ways, which means that each of them shows a different part of each individual's soul. Through the exhibition, viewers could enjoy how our ancestors' hearts and minds are aesthetically represented in a wide variety of ways.

칠분의 구현

Two Portraits of Jo Youngbok

이지당二樂堂 조영복은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었던 문신입니다. 그를 닮은 두 점의 그림은 모두 18세기 조선 시대 초상화를 대표하는 명작입니다. 정확을 기한 초상화는 조영복의 아우이며, 영조 능행단 선비 화가인 조영석이 그린 것입니다. 다른 한 점은 임금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솜씨를 인정받은 화원 진재해가 그렸습니다. 조영복이라는 한 인물을 당대 개성 뚜렷한 화가 두 사람이 각각 그려낸 것입니다.

조영석이 그린 초상화는 귀양 중인 조영복을 형제가 그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반면 진재해는 유배가 끝나고 다시 관직에 오른 시점의 조영복을 그렸습니다. 두 점의 그림이 모두 같은 해에 완성되었음에도, 담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조영석이 관인 화가로서 관직에서 벗어난 형의 처지에 연모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면, 진재해는 다시 관직에 오른 사대부 관료의 품모를 정형화된 양식에 맞추어 그려냈습니다.

김수운이 그린
〈이광정 초상〉 뒷면의 글
기유년1609에 사은사로 북경에 갔을 때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구하여 초상을 그렸다.
돌아와 살펴보니 이 그림이 정밀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후손들에게 이를 전하면 누가 그 닮음과 닮지 않음을 알겠는가.
반드시 장차 이 초상을 가리키며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 할 것이다.
이처럼 되는 일이 두려워 뒷면에 기록하여
모든 자손에게 보일 뿐이다.
경술년1610 1월 상순
연원부원군 이광정이 쓰다.

1

칠분七分의 구현

Two Portraits of Jo Youngbok

이지당二知堂 조영복은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었던 문신입니다. 그를 담은 그림 2점은 모두 18세기 조선시대 초상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평복을 입은 초상화는 조영복의 아우이자, 명망 높았던 선비 화가인 조영석이 그린 것입니다. 다른 한 점은 임금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던 화원 진재해가 그렸습니다. 조영복이라는 한 인물을 그린 뛰어난 솜씨의 초상화 두 점은 그림이 어떻게 정체성의 일부분을 잡아내 시각화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영석이 그린 초상화는 귀양 중인 조영복을 찾아가 그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반면 진재해는 유배가 끝나고 다시 관직에 오른 시점의 조영복을 그렸습니다. 두 점의 그림이 모두 같은 해에 완성되었음에도, 담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조영석이 문인 화가로서 관직에서 벗어난 형의 학자적 면모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면, 진재해는 다시 관직에 오른 사대부 관료의 풍모를 정형화된 양식에 맞추어 그려냈습니다.

Yijidang二知堂 Jo Youngbok served as a civil minister from the reigns of King Sukjong to King Yeongjo. These two portraits depicting him are among the 18th century Joseon portrait painting masterpieces. The one that represented him in ordinary dress was painted by his brother Jo Youngseok, a renowned literati painter; the other was by Jin Jaehae, a government's official painter who gained a reputation as the best court painter by painting the King's portrait. Two of the most prominent painters of their time painted the same figure in their own ways.

Jo captured this civil minister in exile by visiting him while Jin portrayed him when he returned from exile and was again appointed to the government post. Although these two paintings were produced in the same year, the subjects that the painters chose to depict were different. If literati painter Jo offered a vivid description of his brother as a scholar who was stripped of his office, Jin represented the noble dignity of a Joseon scholar-official (sadaebu) from the highly educated ruling class in the standardized style.

01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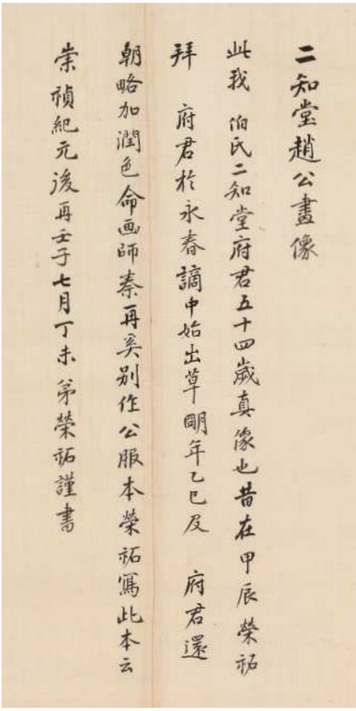
Portrait of Jo Youngbok

조영복은 신임사화 때 노론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어 귀양살이를 합니다. 그러자 동생 조영석은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뒤 1724년에 형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관직을 떠나 은거하고 있는 조영복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다음 해에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조영석은 형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 속 조영복은 평상복을 입고 곧게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 드러나게 얹은 양손은 이 초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손을 감추는 전통적인 초상화의 관습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림 속 인물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조선, 1725년
조영석 趙榮祏
보물

Joseon Dynasty
1725
Jo Youngseok
Treasure


二知堂趙公畫像
此我伯氏二知堂府君五十四歲眞像也昔在甲辰榮祐拜府君於永春謫中始出草明年乙巳及府君還朝略加潤色命畫師秦再奚別作公服本榮祐寫此本云
崇禎紀元後再壬子七月丁未弟榮祐謹書

二知堂趙公畫像

此我伯氏二知堂府君五十四歲眞像也
昔在甲辰榮祐拜府君於永春謫中始出草
明年乙巳及府君還朝略加潤色
命畫師秦再奚別作公服本
榮祐寫此本云

崇禎紀元後再壬子七月丁未弟榮祐謹書

이지당 조영복 초상

이것은 나의 큰 형님이신 이지당 부군의 54세 때 초상이다.
갑진년[1724]에 영석이 영춘의 유배지에 계신 부군을 뵈었을 때
초본을 그렸다가 다음 해인 을사년[1725]에 부군이 조정으로
돌아오셨을 때 약간 손질하였다.
화사 진재해에게 따로 공복본을 그리게 하고,
영석은 이 그림을 그렸다.

숭정 기원 후 두 번째 임자년[1732] 7월 정미일
아우 영석 삼가 씀.

02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Portrait of Jo Youngb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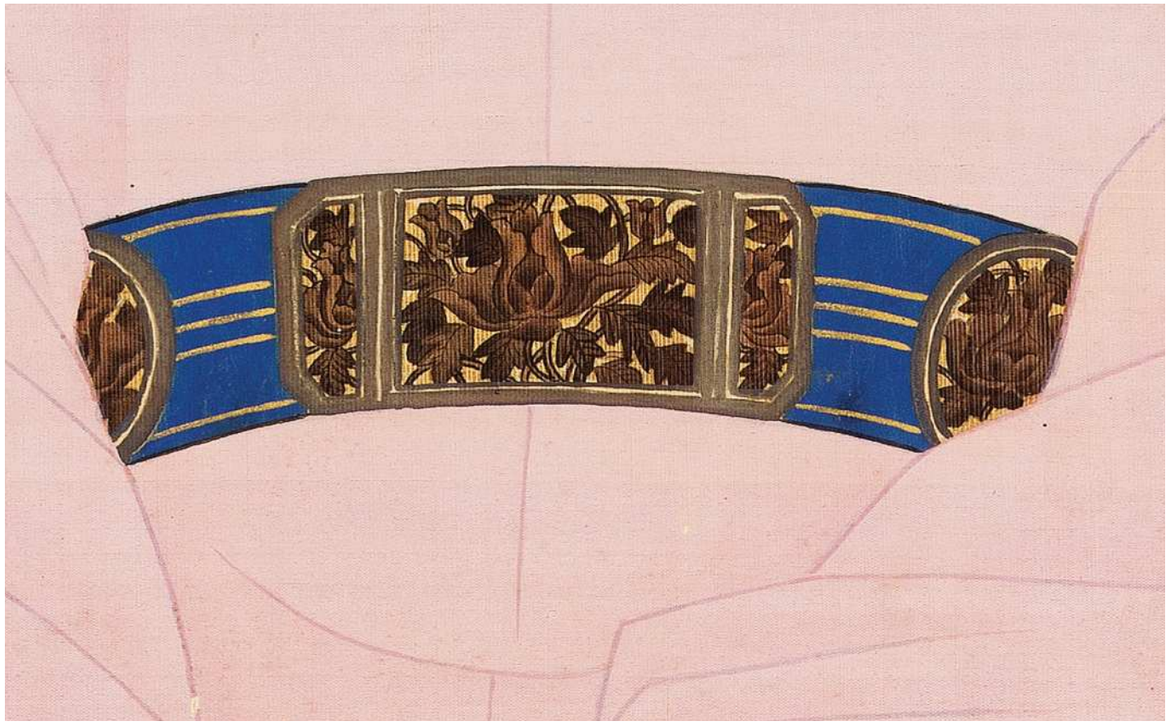
조선, 1725년
진재해 秦再奚
보물

Joseon Dynasty
1725
Jin Jaehae
Treasure

진재해가 그린 초상은 조영복이 유배에서 돌아온 해에 그린 것입니다. 비단 바탕에 섬세한 채색으로 표현된 인물은 관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홍단령의 시복時服을 입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편에 글이 있어 주인공의 신분과 그림을 그린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진재해의 그림은 18세기 초 공신상功臣像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왼편을 드러냈고, 신체는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옷의 옆트임은 전시대에 비하여 간략하게 표현되었으며 사모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초상화의 배경으로 사용되던 채전彩氈은 더 이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얼굴 묘사는 조영석의 그림과 거의 비슷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편에는 "개성부 유수 이지당 조공의 54세 모습을 진재해가 그리다開城府留守二知堂趙公五十四歲畵像 秦再奚寫"라는 발문이 남아 있어 그림을 그린 이와 그린 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조영복은 호피를 깐 의자에 앉았고 두 손은 공수하였으며,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삼금대鈒金帶를 둘렀습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없고 족좌대가 높고 넓은 점, 높은 오사모의 형태 등은 18세기 초상화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점의 〈조영복 초상〉 함께 보기

정윤회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기도박물관이 함안 조씨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조영복 초상 2점은 18세기 조선시대 초상을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2점의 초상화 중 1점은 조영복의 아우이자 영조 때의 대표적인 선비 화가였던 조영석이 그린 것입니다. 다른 초상 1점은 같은 무렵에 왕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명망이 높았던 화원 진재해가 그렸습니다. 조영복이라는 한 인물을 당대 가장 명망 높은 선비 화가와, 뛰어난 솜씨로 이름을 날리던 도화서 화원이 각각 그려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려낸 조영복 초상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점의 작품 모두 매우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대표적인 화가 두 사람이 조영복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또 그들은 인물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려 노력했는지,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당 조영복은 숙종 대부터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맡았던 문신입니다. 경상도관찰사와 개성부 유수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45세 때에는 동지부사冬至副使로서 청나라 연경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57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관료로 일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지당이라는 조영복의 호는 "만족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도덕경道德經』의 문구에서 따 온 것입니다. 당쟁이 한참이던 조정의 중심에서 일했던 조영복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영복은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노론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어 1723년부터 1725년까지 선산과 영춘에서 귀양살이를 합니다. 그러자 동생 조영석은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뒤 1724년에 유배 중인 형 조영복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관직을 떠나 은거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조영복이 54세이던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야 그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이 첫 번째 〈조영복 초상〉도01입니다.

조영석은 형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형화된 초상화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영복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림 속 조영복은 흰색의 방건을 쓰고 평복을 입고 있습니다. 두루마기에 빨간 도포끈을 동여맨 차림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상시에 입던 것입니다. 조영복의 얼굴은 왼편이 조금 더 드러나지만, 신체는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복은 매우 유려한 선으로 그려졌고, 붉은 띠, 허리 앞에 놓인 부채 등은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화면에 변화를 줍니다.

무릎 위에 얹은 양손이 드러난 부분은 이 초상의 가장 특징적인 점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개 손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영석은 형의 초상을 그리며 이런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손을 그려냄으로써 그림 속 인물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욱 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미 당대에도 뛰어난 초상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조 역시 이 작품을 직접 본 일이 있는데, 그 뛰어난 솜씨를 보고 조영석을 어진 제작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복은 1725년 귀양에서 벗어나 다시 관직에 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당대 제일가는 초상화가 진재해에게 자신의 초상을 한 점 더 그리게 합니다. 이 작품이 두 번째 〈조영복 초상〉도02입니다. 진재해는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원으로 당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조영복 초상 역시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림 전반에 매우 고르게 색을 사용했고, 표현은 사실적이면서도 인물의 기품을 잘 담아냅니다.

진재해의 조영복 초상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공신도상功臣圖像과 유사한 형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 속에서 조영복은 마치 본인이 관직에 다시 올랐음을 보여주려는 듯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분홍빛 시복을 입고 있습니다. 양손은 소매 속에 단정하게 감추었고,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차분하게 앉은 모습입니다.

진재해는 분명한 윤곽선을 사용해 조영복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굳게 다문 가는 입술과 짧은 수염, 아래로 약간 내려온 눈꺼풀과 넓은 턱선의 표현은, 조영석의 그림에 나타난 모습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적이고 곧은 자세와 관복이 주는 권위는 조영석의 그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영석의 그림 속 조영복에게는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조영석이 관직에서 벗어난 은거인으로서의 조영복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담아냈다면, 진재해의 그림 속 조영복은 입신양명한 한 사람의 관료로 그려졌습니다. 조영석이 문인 화가의 입장에서 형의 학자적 면모를 면밀하게 담아낸 반면, 진재해는 귀양에서 벗어나 다시 관직에 오른 사대부 관료의 풍모를 정형화된 양식에 맞추어 그려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戲倩畵手 七分留眞
竹風梧月 想像精神

– 柳綏, 〈畵像自讚〉 中

장난삼아 화공의 손을 빌려 참모습의
칠분을 남겼으니
대숲에 부는 바람과 오동나무에 뜬
달 같은 정신을 연상케 하네

- 유수, <화상자찬> 중

2

조영석과 진재해

Two Masters

관아재觀我齋 조영석은 영조 시대의 대표적인 선비 화가입니다. 인물화에 뛰어났으며, 산수에도 훌륭한 솜씨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형 조영복의 초상화를 훌륭하게 그려낸 것이 알려지면서, 영조는 조영석에게 어진御眞 모사模寫를 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비가 그림 기술로 임금을 섬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이를 사양하여 고초를 치렀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은 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으로부터 조영복과 조영석에 관련된 유물들을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벽은僻隱 진재해는 조영석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인물화로 이름을 날린 화원입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숙종의 어진을 다시 그리는 일을 두 차례나 도맡아 진행할 정도로 명망이 높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수 초상〉은 〈조영복 초상〉과 함께 그의 기량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세심한 얼굴 묘사와 유려한 색 사용은 초상화가로서 진재해의 뛰어난 솜씨를 잘 보여줍니다. 산수화에도 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월하취적도〉를 통해서 진재해의 솜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Gwanajae觀我齋 Jo Youngseok was one of the leading literati painters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who was recorded to be excellent in figure painting and the landscape. As he became known for his remarkable portrait of his brother Jo Youngbok, King Yeongjo commissioned him to make a copy of the King's portraits. However, he declined the commission, saying that it was wrong for a scholar to serve the King with his painting skill, only to suffer many hardships for it. Gyeonggi Province Museum houses the relics related to Jo Youngbok and Jo Yonugseok, which were donated by the Champangong Pa, a sub-branch of the Jo family of Haman.

Byeokeun僻隱 Jin Jaehae, a court painter working in the same period, was renowned for his figure paintings. Althoug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him, it is certain that he was so distinguished as to paint the portrait of King Sukjong as much as two times. Together with *Portrait of Jo Youngbok*, *Portrait of Yu Su* is also a representative painting that features his outstanding talents. His detailed facial description and elegant use of colors show his prodigious skills as a portrait painter. Jin is also recorded to be good at landscape painting, as in *Playing a Flute in the Moonlight* which has been known as his work.

03

유수 초상

柳綏肖像

Portrait of Yu Su

유수[1678-?]의 본관은 진주이며 자는 여회汝懷, 호는 성곡聖谷입니다. 그가 동래 부사로 일하던 시기에 진재해가 그린 초상으로, 유수의 49세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유수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고, 왼쪽 위에는 그가 62세 되던 1739년에 이 그림을 보고 감회에 젖어 쓴 글이 적혀있습니다.

유수는 사모를 쓰고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삽은대鈒銀帶를 둘렀습니다. 왼편이 드러난 얼굴은 정교한 선으로 표현되었고, 붉은빛으로 엷게 색이 들어간 뺨은 인물을 생기 있게 그려냈습니다. 이 초상과 관련한 진재해의 편지 2장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1726년
진재해 秦再奚
보물

Joseon Dynasty
1726
Jin Jaehae
Treasure

聖谷 柳公 諱綏 字汝懷 乙酉生進 庚寅蔭仕 辛丑文科
甲辰通政 生於 肅宗四年 戊午五月初七日亥時
四十九歲 丙午 在東萊 倩西生鎭僉使 泰再奚 摹眞

畫像自贊

幼孤老獨 零丁一身
操心忍性 備嘗艱辛
筮仕科第 秖爲悅親
傲骨骶髂 跡謝要津
不阿於世 不媚於人
觸忤權貴 動輒逢嗔
退守先壠 樂道安貧
稼圃事業 棋釣經綸
丘壑適意 棟宇維新
可月樓中 烏几角巾
性耽墳典 志負君民
庶幾無怍 爲子爲臣
戲倩畫手 七分留眞
竹風梧月 想像精神

六十二歲 己未正月初七日 自書

[印文] 聖谷, 晉山人, 柳綏, 汝懷

성곡 유공의 휘는 수, 자는 여회이다. 숙종 을유년 1705에
생원·진사가 되고, 경인년1710에 음보蔭補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신축년1721에 문과급제하고 갑진년1724에
통정대부가 되었다. 숙종 4년 무오1678 1월 7일 해시에
태어났다. 49세 때인 병오년1726에 동래에서
서생진西生鎭 첨사僉使 진재해에게 부탁하여 그린 초상.

초상화에 스스로 시를 적는다.

어려선 고아로 늙어선 독신으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조심하고 인내하며 갖은 고초 다 겪었네.
벼슬을 시작하고 과거에 급제한 것은 다만 어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며
강직한 성격이라 중요한 자리를 마다했네.
세속에 굴하지 못하고 남에게 아첨하지 못하니
권력과 부귀에 맞서 번번이 성낼 일 당하였네.
물러나 선산을 지키며 가난을 마다 않고 도를 즐기니
농사일은 사업이요 바둑과 낚시는 경륜이라.
산촌에 뜻이 맞아 기둥과 추녀가 새롭구나.
달빛 망루 속 검은 의자에 두건 쓰고 앉았네.
경전을 탐하고 뜻은 임금과 백성을 저버렸으나
그나마 부끄럼 없어 자식 되고 신하 되었다네.
화공에게 부탁하여 칠분을 그려내니
죽풍 부는 가을에 정신을 상상하네.

62세 기미년1739 1월 7일
스스로 씀.

[인문] 성곡, 진산인, 유수, 여회

04

편지

書簡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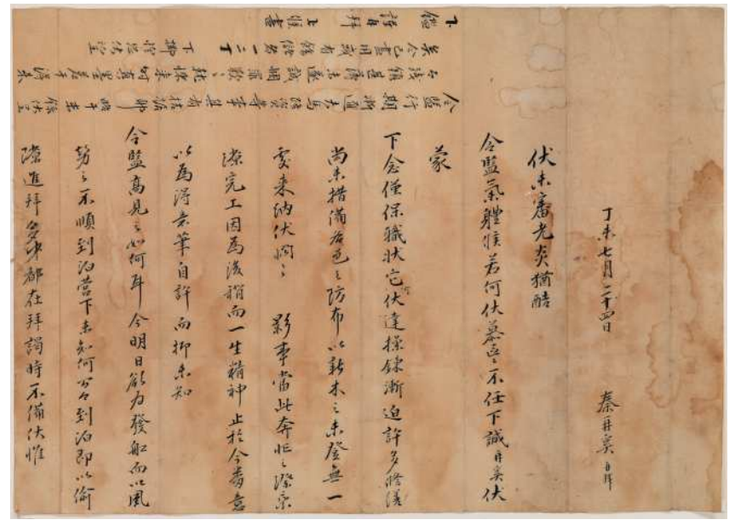
〈유수 초상〉과 함께 초상함 안에 보관되던 2장의 편지로서 진재해가 쓴 것입니다. 1727년 7월 5일의 편지에는 초상화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월 24일의 편지에는 완성한 초상화를 보낸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편지에서 언급한 그림은 시복본 초상으로,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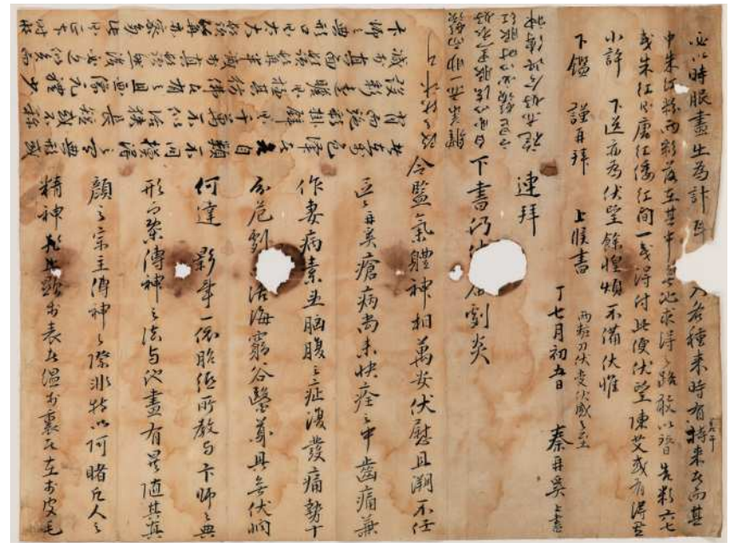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그림의 재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조선시대 초상화의 주문과 제작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료입니다.

連拜下書 仍伏審劇炎 令監氣體神相萬安 伏慰且溯不任區區 再奚瘡病尙未快痊之中 齒痛兼作 妻病素患胸腹之症復發 病勢十分危劇而闖海窮谷 醫藥具無 伏悶何達 影事一依胎紙所敎與卞師之典形 而槩傳神之法 與他畵有異 隨其眞顔之宗主 傳神之際 非特以阿睹 凡人之精神 顯於表者 緼於裏者 在於皮毛者 在於色澤者 各自類不同 摸得之間 典形或肖 而施彩掛壁 則千萬不似 闊狹長短 或不稱 設彩遠瞻 則彷佛者有之 且畵像 元禮小減於眞面 鬚髯半減於眞鬚 然後必近似矣 而卞師之典形口則太大 鬚髯亦密多 此則正本時將改之伏計耳 體樣亦一助 而鬚白則以法服黑衣好 而皂鬚必以時服紅袍亦好 今此傳神 必以時服畵出爲計耳 摹入各種 來時有若干持來者 而其中朱紅粉兩彩 落在其中 無他求得之路 敢以替告 彩六七或朱紅 則唐紅倭紅間一錢 得付此便伏望 陳艾或有得置 小許下送 亦爲伏望 餘惶煩不備 伏惟下鑑 謹再拜上候書

丁七月初五日 秦再奚 上書

兩粧刀伏受 伏感之至 (別行小字)





조선, 18세기
진재해 秦再奚

Joseon Dynasty
18th century
Jin Jaehae

진재해의 편지 1

연이어 하달하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엎드려 살피니 폭염에 영감의 몸과 마음의 기색이 아주 편안하시다 하니 삼가 위로드리며 또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해는 종기병이 아직 쾌차하지 않은 중에 치통이 겹쳐 일어난 데다 아내의 지병인 가슴과 배의 병이 재발하여 병세가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먼 바닷가 궁벽한 고을이라 의원도 약도 모두 없으니 고민스러움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정에 관한 일은 한결같이 태지胎紙에 가르친 바를 따라 변사卞師(변상벽)의 전형을 따르겠지만, 대개 전신傳神의 법은 다른 그림과 달라 그 실제 얼굴의 종주를 따라야 하고, 전신傳神을 그릴 때 눈 주변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정신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 속에 숨겨진 것, 가죽과 털에 있는 것, 안색의 윤택에 있는 것 등 각자의 유형이 같지 않아 베껴 그리는 사이에 전형이 혹 닮았다 하더라도 시채施彩하여 벽에 걸면 곧 천만에도 비슷하지 않고, 넓고 좁음과 길고 짧음이 혹 그럴 듯 하지 않더라도 설채設彩하여 멀리서 쳐다보면 곧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또 초상화에 있어 원례元禮는 실제 얼굴보다 조금 작게 하고 수염은 실제 보다 반쯤 줄인 후에야 반드시 근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사의 전형은 입은 매우 크게 수염은 역시 조밀하게 하는데 이는 곧 정본을 그릴 때 장차 그것을 고치려는 은밀한 뜻일 뿐입니다. 몸체의 모양도 역시 일조하는데 수염이 훨 경우 법복法服으로는 흑의黑衣가 좋고, 검은 수염이 필요한 경우 시복時服으로는 홍포紅袍가 역시 좋습니다. 지금 이 초상화는 반드시 시복으로 그려내고자 계획할 뿐입니다.

각종 재료는 모사하러 들어올 때, 약간 가지고 온 것이 있으나 그 중 주홍朱紅 두 색분色粉은 빼놓고 와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색분 6-7가지나 혹 주홍분이 있으시면 곧 당홍이든 왜홍이든 간에 1돈만 이 편에 부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은 쑥도 혹시 얻어 놓은 게 있으시면 조금 내려 보내주시기를 역시 엎드려 바랍니다. 나머지 황당하고 번잡한 말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살펴주시기를 굽어 생각합니다. 삼가 재배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정 7월 초5일 진재해 올림

[추신] 2개의 장도를 삼가 받으니 감사한 마음이 지극합니다.

伏未審老炎猶酷 令監氣體候若何 伏慕區區不任下誠 再奚伏蒙下念 僅保職狀 他無伏達 操鍊漸迫 許多修繕 尙未措備 各邑之防布 以新木之未登 無一處來納 伏悶伏悶 影事當此奔忙之際 乘隙完工 因爲後褙 而一生精神 止於今番 意以爲得意筆自許 抑未知令監高見之如何耳 今明日欲爲發船 而以風勢之不順 到泊營下 未知何間 而到泊卽以偸隙進拜 多少都在拜謁時 不備 伏惟令監行期漸邇 夫馬路資等事 其有拮据耶 若干末錄伏呈 而殘鎭甚薄 未遂誠悃 罪歎罪歎 就悚 來時眞墨若干得來矣 今已盡用 或有餘儲者 一二丁下擲 惶恐 伏望下鑑 謹再拜上候書

丁未七月二十四日 泰再奚 再拜

진재해의 편지 2

늦더위가 오히려 혹독하니 여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영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삼가 그리워하나 구구하게 저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재해는 염려해 주신 덕분에 겨우 직분을 지키는 상황으로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전투 훈련 시기가 점점 임박해 수선할 것이 허다한데도 오히려 아직 각 읍의 방포는 갖추어 두지 못했습니다. 새로 짠 무명은 아직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쳐 오는 곳이 아직 한 곳도 없으니 고민되고 고민됩니다.

영정 일은 이렇게 바쁜 중에도 잠시 틈을 타 완공하였습니다. 뒤의 배접이 되고 일생의 정신이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영감의 고견이 어떠한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배를 출발시키려고 합니다만 바람이 순조롭지 못해 언제 군영에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짬을 내 찾아뵙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배알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히 말씀드립니다.

영감께서 가실 기한이 점점 다가오는데 말과 여행비 등이 마련되었는지요? 약간의 말록末錄을 삼가 드리지만 죄잔한 군진인지라 매우 빈약하여 정성을 이루지 못한 죄를 한탄합니다. 하고픈 것은 송구하게도 올 적에 진묵을 약간 얻은 것을 금번에 다 썼습니다. 혹시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1-2정 내려주시면 황공하겠습니다. 굽어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삼가 두 번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정미년 7월 24일 진재해 재배

05

월하취적도

月下吹笛圖

Playing a Flute in the Moonlight

소나무 밑의 바위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피리를 부는 선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왼편에 조선 말기의 화가 이도영李道榮이 "벽은 진 선생의 유묵으로서 후학 이도영이 배관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현재까지 진재해의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비스듬하게 솟아오른 산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 비스듬하게 굽은 소나무와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과 구도 등은 전형적인 절파浙派 화풍을 보여줍니다. 조선에서는 18세기 이후로 이와 같은 화풍의 그림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진재해를 절파 화풍의 마지막 화가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조선, 18세기
전 진재해 秦再奚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Joseon Dynasty
18th century
Attributed to Jin Jae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06

연행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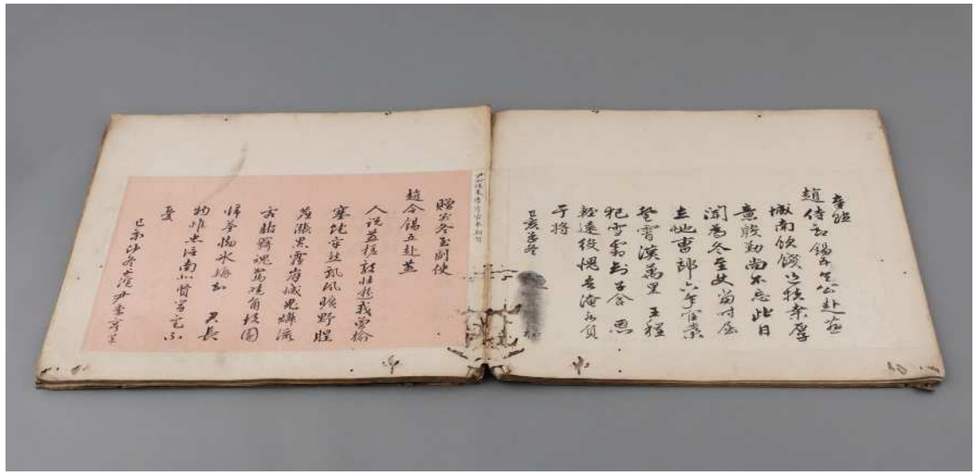
燕行別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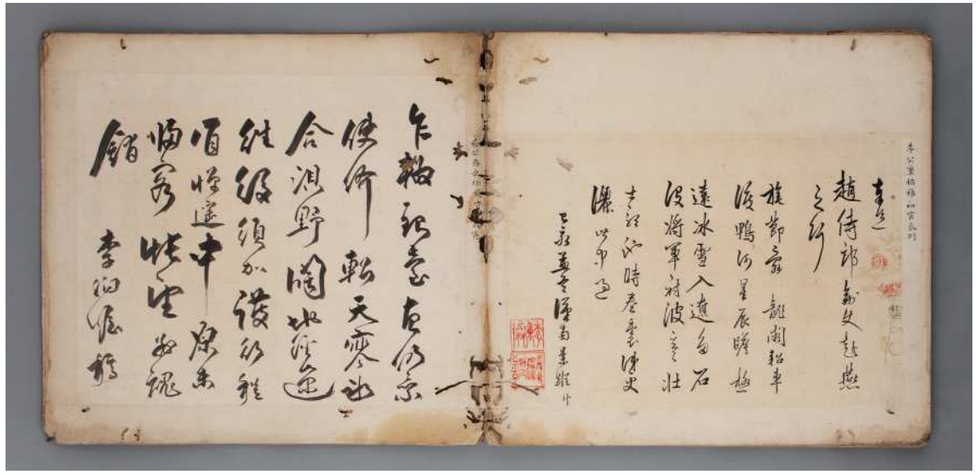
Collection of Poems for the Travel to Yenching

조영복이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북경으로 떠나기 전, 동료 중신들과 주고받은 송별시를 가문에서 모아 보관한 것입니다. 1719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나눈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는 두 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한 권만이 전해집니다.

조선, 1719년

Joseon Dynasty
1719





07

화보

畵譜

함안 조씨 집안에서 전해져 온 목판본 화보입니다. 여러 장에 걸쳐 대나무, 말, 양, 물고기, 다람쥐, 잠자리, 꽃 등을 그리고 옛 고사를 오른편에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보는 그림의 도상이나 화법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Album of Paintings

조선 후기

late Joseon Dynasty

08

교지

敎旨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여러 노론계 인사들이 유배에서 돌아옵니다. 조영복 역시 1725년에 귀양에서 벗어나 같은 해 5월에 경상도관찰사로 제수됩니다. 이 유물은 당시 받은 교지로, 조영복을 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oyal Edict of Appointment

조선, 1725년

Joseon Dynasty
1725

敎旨	교지
趙榮福爲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大丘都護府使者	조영복을 통정대부 수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삼다.
雍正三年五月二十日	옹정삼년(1725) 오월이십일

3

清高遺像
彷彿儀風

– 正祖, 〈金堉肖像讚〉 中

남은 모습 맑고 고상하니
생전의 풍채를 방불케 하네

-정조, <김육 초상찬> 중

한 사람, 두 개의 모습

Dimensions of Identity

조선시대에 그려진 초상화는 세밀한 표현과 정제된 아름다움이 두드러집니다. '전신사조傳神寫照'나 '신사神似'라는 말로 대표되는 초상화 이론은 옛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외형은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담아내려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외형도 마음도, 한 가지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선인들의 마음속에도 여러 뜻과 의지가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그린 초상화도 각기 다른 마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 형식의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17세기를 지나며 초상화의 의미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식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관복을 입은 초상화 이외에도 일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여럿 그려지게 됩니다. 초상화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시각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Joseon portrait paintings are well-known for their delicate expression and refined beauty. The traditional theories of the portrait, represented by the ideas such as "transmitting the spirit 傳神寫照" and "likeness in spirit 神似," that the ancient people strived to capture not only the appearance but also the spirit in their paintings. Nevertheless, humans are such complex beings. Neither their appearance nor their mind has only a single aspect.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represent the whole person as he or she is in painting.

The ancestors may have had various intentions and will in their minds. Similarly, their portraits may have reflected those various aspects of their hearts. The Joseon scholar-officials (sadaebu) left their appearances through paintings in many styles. In particular, as they had a new understanding of portrait paintings in the 17th century, portrait painters began to paint them not only in official uniform but also in plain cloth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w, portrait paintings could serve as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different identities of individuals.

09

김육 초상

金堉肖像

Portrait of Kim Yuk

중국 명, 17세기
전 호병 胡炳
실학박물관 소장

Ming Dynasty
17th century
Attributed to Hu Bing
The Museum of Silhak

김육1580-1658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입니다. 숙종의 외증조이면서 실학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신으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곳에 머물던 당시 중국 화가에게 주문하여 그린 초상화로 보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초상이 주로 측면 모습을 그렸던 것과 달리, 이 그림은 호랑이 가죽이 덮인 의자에 앉은 김육을 정면에서 바라본 자세로 담았습니다. 발받침 아래 채전을 깔지 않은 점도 조선 중기 초상화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는 나중에 이 그림을 보고 숙종이 지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領議政潛谷金文貞公畵像

肅宗大王 御製贊

蒼顔鶴髮望如仙風
厥像伊誰潛谷相公
大賢之後傳家孝忠
正色廊廟盡瘁鞠躬
一心體國神明可通
於乎先正小子欽崇

영의정 잠곡 김문정공 화상

숙종대왕 어제찬

야윈 얼굴과 백발은 신선의 풍채로다.
그 상은 누구인가, 잠곡 상공이로세.
대현의 후손으로 집안에 충효 전하고
엄숙한 태도로 의정을 맡아 몸 바쳐 일했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신명이 통할만하다.
아, 선현이여, 소자 흠앙하옵니다.

10

김육 초상

金堉肖像

Portrait of Kim Yuk

김육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화원 호병을 통해 제작한 초상입니다. 일명 '송하한유도 松下閒遊圖'라고도 불립니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는 영조가 1751년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는 전신상 〈김육 초상〉에 쓴 숙종의 글에 운韻을 맞춰 시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림 속 김육은 키가 큰 소나무를 배경으로 윤건綸巾과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림의 도상은 전원시인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그림 속 옷차림은 촉나라의 명재상 제갈량 諸葛亮이 즐겨 입었다는 복식과도 같아서 그의 충신 이미지를 초상에 함께 담아내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국 명, 1637년
호병 胡炳
실학박물관 소장

Ming Dynasty
1637
Hu Bing
The Museum of Silhak

潛谷金文貞公小像

綸巾鶴氅倚立松風
是誰之像潛谷金公
昔之股肱爲國丹忠
效古人義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

[印文] 胡炳之印, 穌鶴行人

잠곡 김 문정공 소상

윤건 쓰고 학창의 입고
솔바람 의지하고 서있으니
이 누구의 상인가? 잠곡 김공이로세.
과거 대신으로 나라 위해 충성하였으니
옛사람의 뜻을 본받아
혼신으로 직분을 다하였네.
대동법을 기획한 것 신통하다 할 만하니
아, 후손들은 백세토록 숭앙하네.
신묘년1751 2월

[인문] 호병지인, 화학행인

11

김육 초상

金堉肖像

Portrait of Kim Yuk

맹영광이 그린 김육의 흉상입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장황된 다른 두 점의 초상과 달리 작은 크기의 화첩으로 꾸며졌습니다. 양각이 귀밑으로 늘어진 사모에 청색 편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얼굴 음영과 쌍꺼풀이 있는 눈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얼굴에 마마 자국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병胡炳이 그린 초상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맹영광이 지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화첩의 앞부분에는 나중에 옮겨 적어 넣은 숙종, 영조, 정조의 찬문이 적혀 있고, 맹영광의 그림에 이어 신익성申翊聖의 찬문이 더해져 있습니다.

중국 청, 1644년
맹영광 孟英光
실학박물관 소장

Qing Dynasty
1644
Meng Yongguang
The Museum of Silhak

領議政潛谷金文正公小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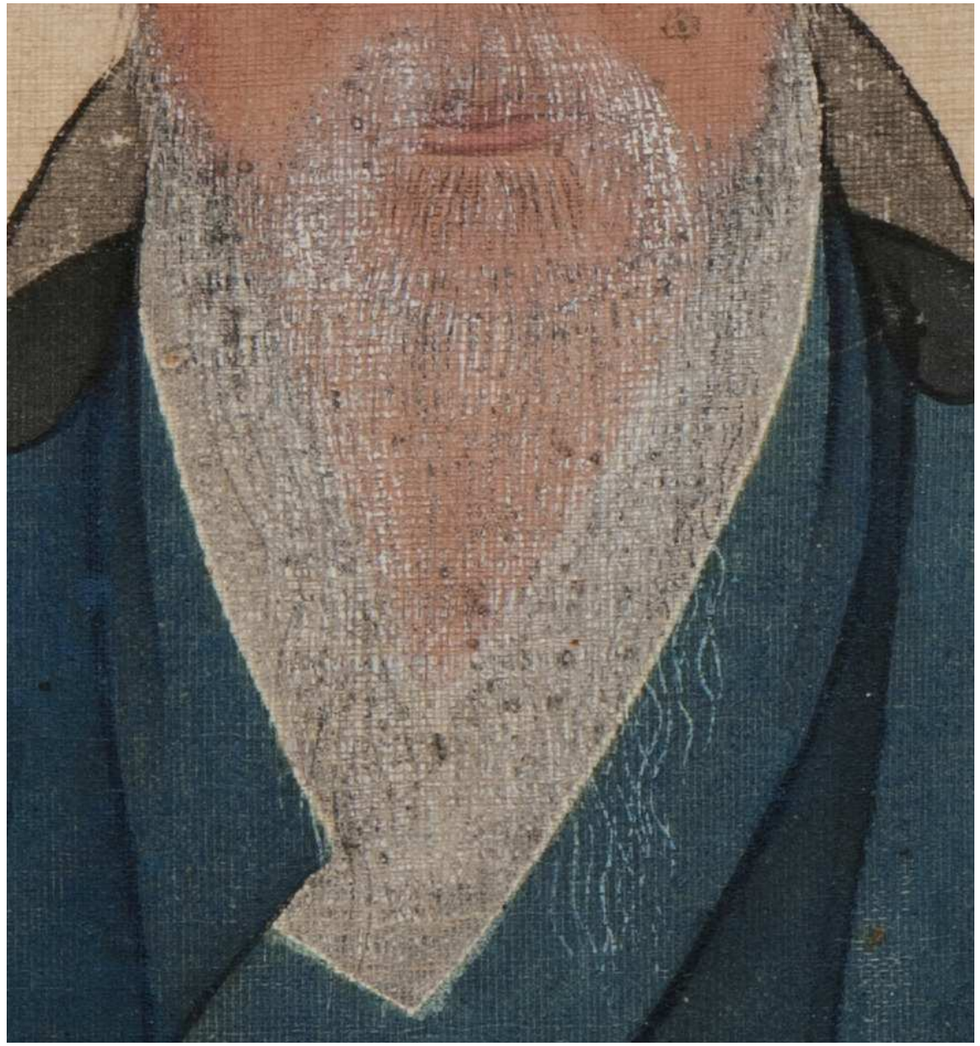
雪髮霞儀 外形內德
君子觀之 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

잠곡 김 문정공 소진

눈처럼 흰 수염에 신선 같은 풍채
내면의 덕이 풍겨나네
군자들이 그를 보고서
누구라도 알아보리

맹영광이 초상을 그리고 찬하다.



12

장만 초상

張晩肖像

Portrait of Jang Man

장만1566-1629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입니다. 그는 이괄의 난을 평정할 때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초상은 당시 왕명에 의해 그려진 공신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속 장만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괄의 난이 있던 시기에 병으로 인해 실명한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아홉 살 때 천연두에 걸려 얼굴에 남은 마맛자국 또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편복본, 무관복본이 문중에 함께 전해졌으나, 무관복은 일제 강점기 때 소실되었습니다.

조선, 1625년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625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3

장만 초상

張晩肖像

Portrait of Jang Man

관복본과 함께 문중에 전해지는 장만의 편복본 초상입니다. 당건에 학창의를 입은 차림으로 얼굴의 왼편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안대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그림이 처음 그려진 것은 관복본보다 더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비가 한가하게 머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에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든 모습 등은 신선을 연상케도 합니다. 장만이 입고 있는 의복 역시 일반적인 조선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만의 문집에 선조로부터 '금룡金龍'이라는 부채를 하사받고 남긴 시가 있어 그와의 연관성도 흥미롭습니다.

조선, 18세기
인동 장씨 태상경공파
옥천부원군 문중 위탁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8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4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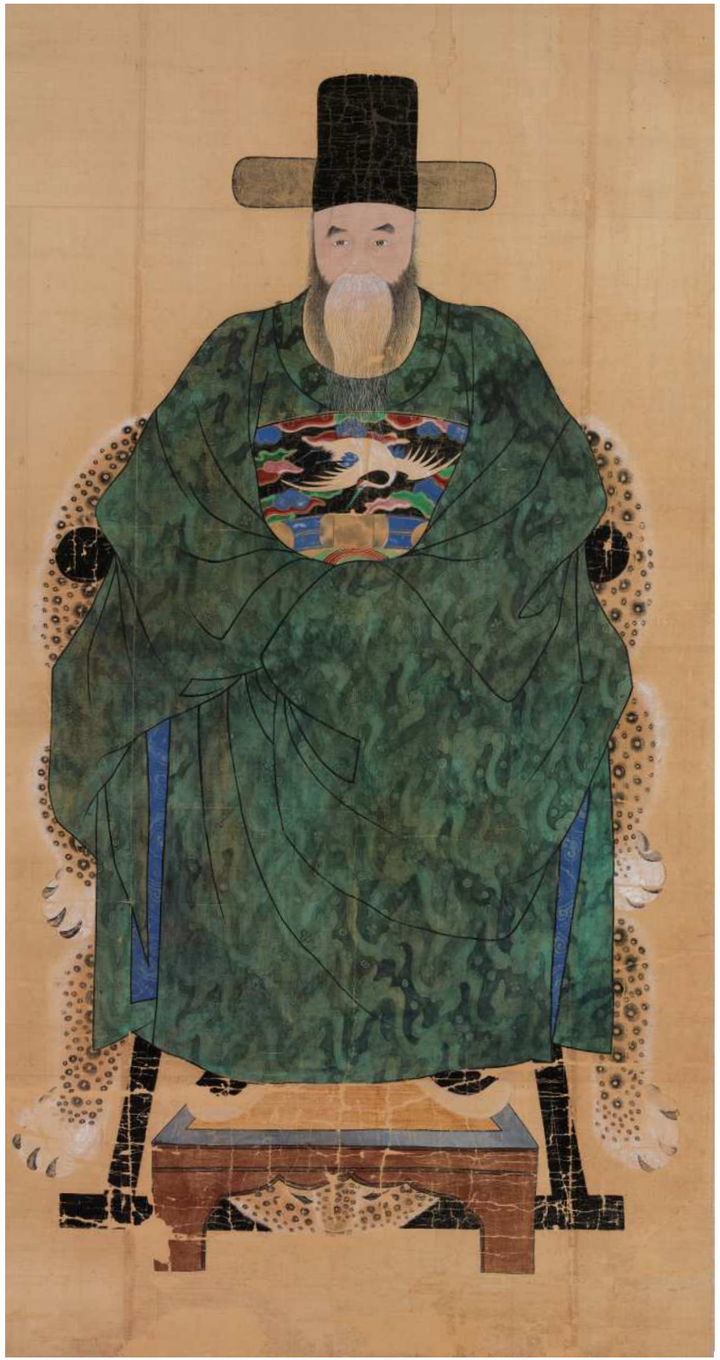
Portrait of Pak Sechae

박세채[1631-1695]는 조선 중기의 관료로, 자는 화숙和叔 호는 남계南溪입니다. 예학을 집대성하고 탕평의 원칙론을 수립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학 흉배가 있는 흑단령에 사모를 갖추고 표범 가죽을 깐 의자에 앉은 전신 정면 초상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한 풍성한 수염 처리와 예리한 눈매 표현이 인물의 성정을 잘 담아냅니다.

팔八자형 발과 발받침의 모양 등에서 17세기 초상화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사모 날개나 관복의 문양 표현 등은 이채롭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3점의 〈박세채 초상〉을 소장하고 있는데, 모든 초상화가 크고 당당하게 인물의 풍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late 17th-early 18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5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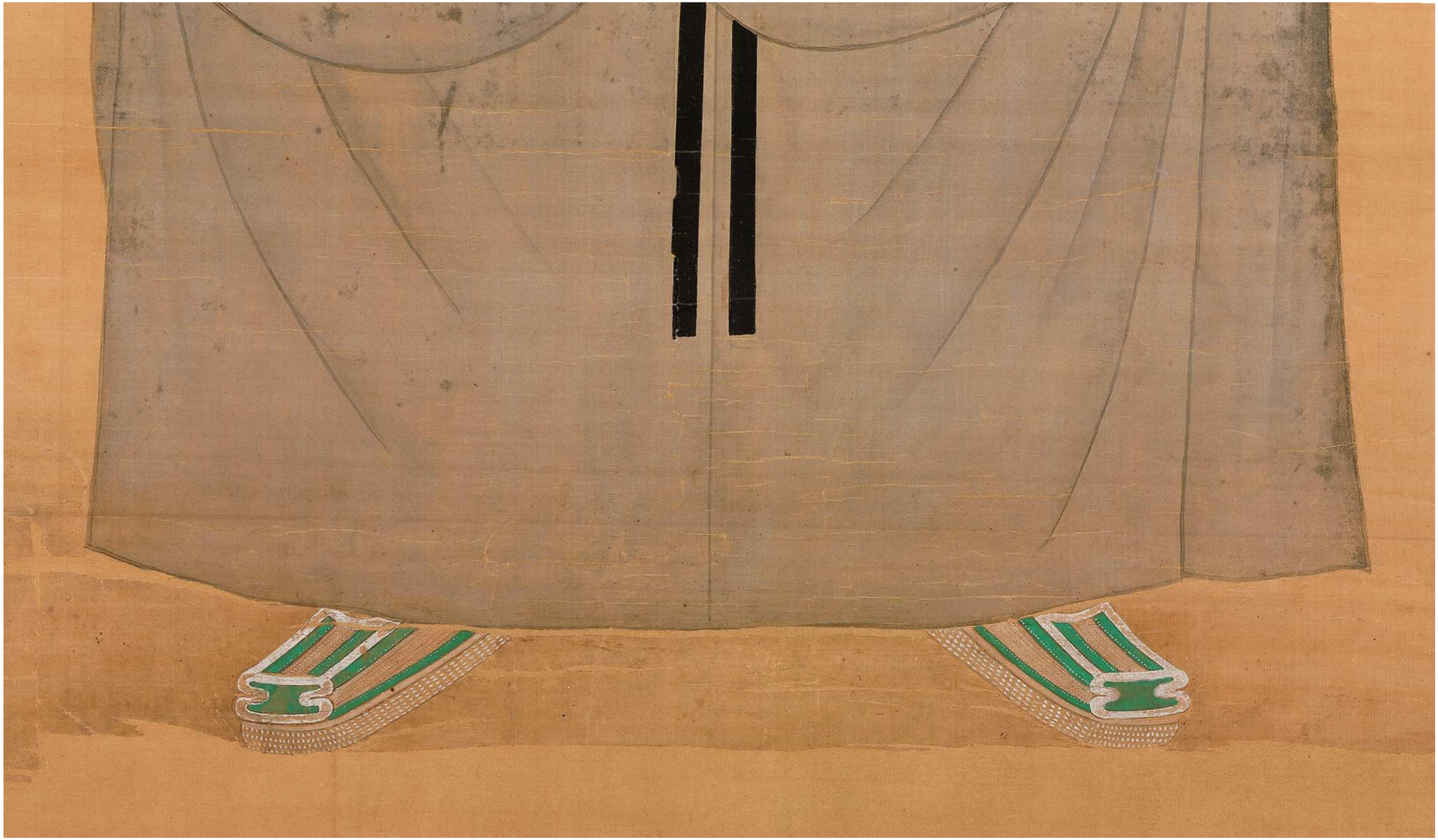
Portrait of Pak Sechae

편복을 입고 서 있는 박세채의 초상입니다. 품과 소매가 상당히 여유로운 포 위로 검은색 띠를 매고, 머리에는 동파관을 쓰고 있습니다. 초록색 비단으로 선을 대 장식한 신이 돋보입니다.

형식에 크게 구애받는 관복본이 아님에도, 이 초상은 옷을 부풀리고 과장하여 그렸습니다. 당대 명망 높은 유학자의 풍모를 위엄 있게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큰 옷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은 가는 선으로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의복은 몇 개의 선만으로 간략하게 처리한 점이 대조적입니다.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late 17th-early 18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6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Portrait of Lee Inyeop

이인엽1656-171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계장季章 호는 회와晦窩입니다. 좌의정, 홍문관 대제학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입니다. 관복본 초상은 얼굴의 왼편을 드러내고 의자에 앉은 전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모에 흉배와 품대를 갖춘 단령을 입고 손을 모아 공수한 모습입니다.

얼굴은 인물의 단정한 성품을 담으려는 듯 콧등과 눈가에 최소한의 음영을 넣어 그려냈습니다. 구불구불한 수염과 눈 끝에 옅게 들어간 붉은 빛의 표현 등에서 화가의 세밀한 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령의 표현은 매우 화려하며, 운학 흉배는 실제로 수를 놓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조선, 18세기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8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7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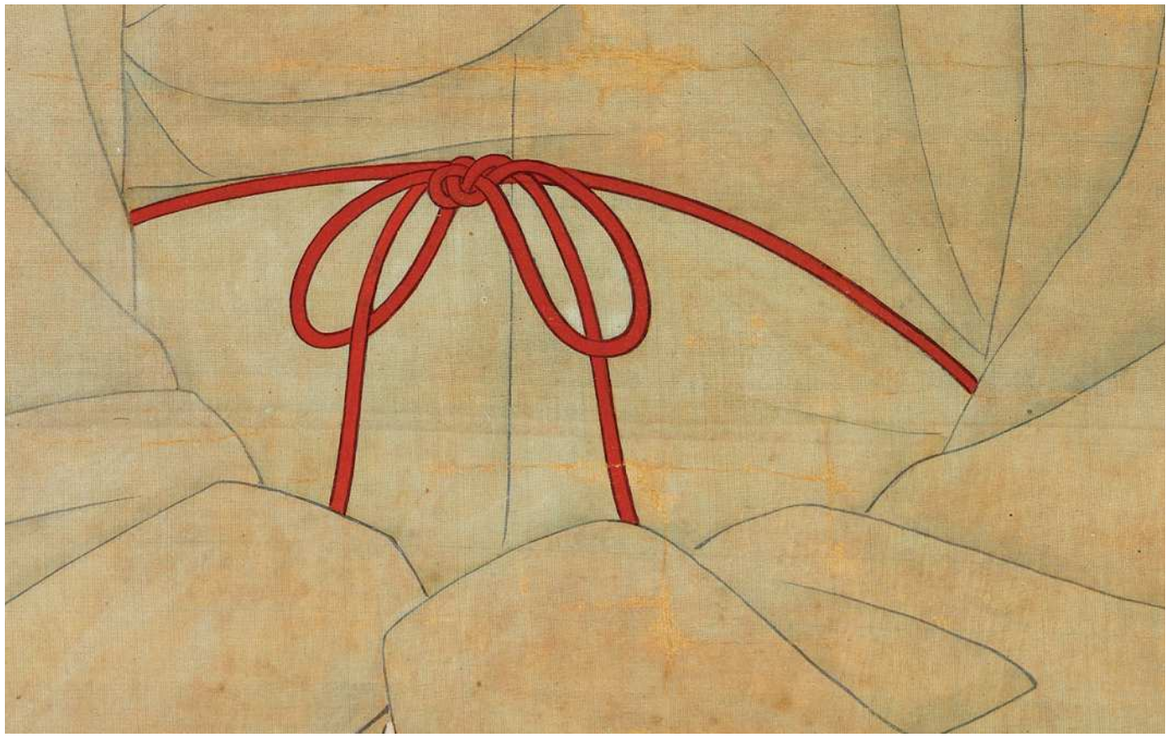
Portrait of Lee Inyeop

사방건을 쓰고 푸른색이 감도는 편복을 입고 있는 이인엽의 반신상입니다. 얼굴의 형태가 관복본 초상과 거의 일치하지만 음영 처리와 수염의 표현, 기운이 넘치는 눈동자의 빛깔 등은 보다 더 섬세합니다.

포 위로 묶은 붉은색의 세조대細條帶는 당상관 이상의 문관이 착용하던 것입니다. 붉은 띠는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화면에 생동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지위를 드러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대제학회와이선생상大提學晦窩李先生像'이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인엽은 그가 52세 때인 1707년에 대제학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18세기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8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8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Portrait of Lee Gwangjeong

이광정1552-1629의 자는 덕휘德輝, 호는 해고海皐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동안 의주까지 국왕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공신상을 그리기 위해 여러 화원이 서른 점이 넘는 초본을 그렸고, 그 중 김수운이 그린 것을 골라 완성한 것이 이 초상입니다.

그림 속 이광정은 흑단령의 관복과 사모를 갖춰 입고 화면의 오른편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넓은 흉배 양 옆으로 어깨선은 다소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의자 뒤로 솟은 듯 보이는 옷자락과 바닥에 깔린 화려한 채단은 17세기 초에 그려지던 공신 초상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뒷면에는 글이 쓰여 있는데, 초상의 제작 과정과 이 그림에 대한 이광정 본인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1604년
김수운 金水雲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Joseon Dynasty
1604
Kim Soow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그림 뒷면의 글씨

萬曆甲辰之秋 命錄扈聖功臣 設都監畵像小肖 臣光庭之名 亦在其中 畵師輩來 寫賤眞

數三十本 不能肖 惟金水雲之畵 似乎彷彿 遂登綃上都監頒之而藏於家

至己酉歲 以謝恩使赴帝京 求寫眞者畵之 歸而質之 尤見其此圖之不工也 傳之後裔

孰知其肖與不肖乎! 必將指點其貌曰 我祖之狀如是也 爲此之懼 題於後 以示諸子孫雲爾

庚戌 元月之上旬 延原府院君 李光庭 書

만력 갑진년[1604] 가을이다. 전에 호성공신을 녹훈錄勳함에 도감을 설치하고 화상을 그리게 하였는데, 신 광정의 이름도 그 가운데 들었다. 화사들이 와서 나의 초상을 그렸는데, 30본이나 그려도 닮지 않았다. 다만 김수운이 그린 것이 다소 비슷하여 비단에 올려 정본으로 삼았으며, 도감에서 내려주어 집에서 보관하였다.

기유년[1609] 사은사로 북경에 갔을 때 초상화가를 구해 그리고 귀국하여 살펴보니 이 그림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누가 그것이 나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겠는가. 반드시 초상화를 가리키며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할 테니, 이것이 두려워 초상화 뒷면에 기록하여 여러 자손에게 알린다.

경술년[1610] 1월 상순 연원부원군 이광정이 쓰다.[1]

1
〈이광정 초상〉 2점의 뒷면에 적힌 글과 그 번역은 이경화, 「이광정 초상 :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미술사학』 36(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p.189-216을 참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19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Portrait of Lee Gwangjeong

이광정이 사은사謝恩使로 북경에 머물던 1609년에 중국인 화가 원승광袁承光에게 요청하여 그린 초상입니다. 귀국한 후에 그는 4년 전에 김수운이 그렸던 초상과 이 초상을 두고 비교는 글을 남깁니다. 이광정은 이 그림을 두고 보니 김수운이 그린 초상이 정밀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림 속 이광정은 공작흉배가 달린 흑색 단령을 입고, 소 뿔로 만든 관대를 허리에 찬 모습입니다. 김수운의 그림과 다르게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 얼굴 또한 바르게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명·청대 중국 초상화에서 흔히 드러나는 자세입니다. 인물의 손이 드러난 점이나 의자에 호랑이 가죽이 덮여 있는 점 등도 모두 중국적인 형식입니다. 그림 뒷면에는 제작 경위를 담은 짧은 글을 쓰여 있습니다.

중국 명, 1609년
원승광 袁承光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Ming Dynasty
1609
Yuan Chenggu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그림 뒷면의 글씨

餘家藏畫像 乃先王朝所頒金水雲畵也-人多短之 歲己酉 餘以謝恩使赴 京師得袁氏寫餘眞
似滕於家藏 遂粧軸以歸 噫是軸也 亦橐中一物 其果無論也歟! 袁氏名承光北京人世業
此技雲 時萬曆紀元之卅七年 己酉卽冬朔後三日 在山海關城西店舍題

- 延原子

나의 집에 있는 초상화는 선왕조 때 받은 것으로 김수운이
그렸는데, 잘 못 그렸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기유년[1609]에 내가 사은사로 북경에 갔을 때 원씨에게
내 초상을 그리게 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좋아 보여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바로 이것이다.
좋은 물건을 얻고 나니 마음이 한가로워 거리낄 것 없었다.
원씨는 이름이 승광으로 북경인이며 대를 이어 그림에
종사한다고 한다. 만력 기원후 37년 기유년 11월 3일
산해관성 서쪽 여관에서 쓰다.

- 연원자

《열에 일곱》 초상화 속 복식 읽기

정미숙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사대부가의 초상은 그림 속 인물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관복본과 유복본儒服本으로 나눕니다. 관복본은 깃이 둥근 단령을 입은 차림의 초상을 말합니다. 용도에 따라 예를 갖출 때 입는 의례용 흑단령을 '상복常服'이라하고, 일상 업무를 볼 때 착용하는 일상 집무용 홍단령을 '시복時服'이라고 합니다. 유복본은 유학자의 평상복 차림을 말합니다. 유복본의 복식에는 심의深衣나 학창의鶴氅衣 또는 도포道袍 등이 있습니다.

상복을 착용한 임우, 장만, 이인엽의 초상은 모두 구름무늬가 있는 흑단령을 입고 있으며 가슴에는 흉배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색 모자인 사모를 쓰고, 신은 앞 코가 살짝 들린 장화 형태의 흑화黑靴를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흑단령이라도 임우와 장만의 초상은 단령의 색이 짙은 청색인 반면, 이인엽의 초상은 짙은 녹색입니다. 비록 색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큰 범위의 흑단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상화마다 단령의 형태와 사모의 크기도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과 형태의 차이는 시대의 흐름 속에 유행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같은 차이를 통해 초상의 주인공이 어느 시기의 사람인지 구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상복 흑단령에는 가슴에 흉배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의 흉배제도는 명나라의 제도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은 '이등체강二等遞降' 원칙에 따라 명나라의 3품에 해당하는 것을 조선에서는 1품용 흉배로 사용합니다. 또 명나라는 1-9품까지 흉배를 달지만 조선에서는 3품까지만 흉배를 달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흉배제도는 1454년인 단종 2년 12월에 종친들에게 흉배 단령을 입도록 하면서 시작되었고, 성종 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흉배 내용을 보시면 1품에서 3품까지의 의례용 집무복에 사紗·라羅·능綾·단緞과 같은 좋은 옷감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문관은 새, 무관은 4발 달린 짐승의 무늬가 있는 흉배를 달도록 하였습니다. 문관의 1품에는 공작, 2품은 기러기, 3품은 은꿩이라고 불리는 백한白鷳 흉배를 달았고, 무관은 1품과 2품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나란히 표현된 호표虎豹 흉배를, 3품은 곰 흉배를 달아 품계를 구분하였습니다.[표1] 곰 흉배의 경우 아직까지 조선시대 그림이나 실물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사헌은 해태 즉 해치獬豸 흉배를 달도록 하였습니다. 해치 흉배는 17세기 이후에 종2품 무관의 흉배로도 종종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치는 두 사람이 싸우면 사나운 자를 머리 뿔로 찌른다고 알려져 있기에, 해치 흉배는 못된 것을 꾸짖고 바른 말을 하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임우 초상〉[도28]의 흉배 문양은 문관 2품을 상징하는 기러기입니다. 한자로는 운안雲雁이라고 부릅니다. 기러기는 상대방에 대한 지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운안 흉배에는 주로 모란과 갈대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만 초상〉[도12]의 흉배에는 꼬리 깃털이 화려한 새와 부귀의 상징인 모란꽃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는 문관 1품을 의미하는 공작입니다. 〈이인엽 초상〉[도16]의 흉배에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경국대전』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학 흉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학은 원래 중국 명나라 관리의 1품용 흉배라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에 명나라가 망한자, 조선에서도 학 흉배를 다는 것이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문관 당상관은 학 흉배, 당하관은 백한 흉배를 달도록 규정했고, 앞서 보셨던 기러기와 공작 흉배는 차츰 사라져 18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19세기가 되면 학 흉배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흉배에 표현된 학의 수에 따라 두 마리는 당상관, 한 마리는 당하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복 단령을 입고 있는 〈조영복 초상〉[도2]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복은 일상 집무복으로 면, 모시와 같은 소박한 직물을 사용하고, 흉배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품계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허리에 두르고 있는 품대品帶입니다. 품대는 가죽 허리띠에 장식을 달아 만드는데, 그 장식의 재료에 따라 품계를 구분합니다. 1품은 무소뿔을 재료를 사용한 서대를 착용하고, 정2품은 무늬가 있는 장식에 금태를 두룬 삽금대鈒金帶, 종2품은 무늬가 없이 금테를 두른 소금대素金帶, 정3품은 무늬가 있는 장식에 은태를 두른 삽은대鈒銀帶, 종3-4품은 무늬가 없이 은테를 두른 소은대素銀帶를 착용합니다. 그 이하의 품계는 흑각대를 사용합니다. 조영복 초상의 품대는 색이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자리에 금테가 있기에 정2품을 상징하는 삽금대로 보입니다. 만일 금테 안에 무늬가 없거나 〈임우 초상〉과 같이 노란색 바탕 중앙에 붉은 무늬가 있다면 종2품의 품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복본 〈조영복 초상〉[도1]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복野服이라고도 부르는 유복은 유학자가 일상에서 갖추어 입는 옷차림으로, 주로 흰색이나 옥색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남자의 포는 앞에서 보았을 때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트임에 따라 그 명칭을 구분합니다. 도포는 뒤자락을 들었을 때 뒤 중심이 트인 옷이고, 대창의는 뒷자락 중심이 트인 옷입니다. 또 양옆이 트였다면 중치막이라고 합니다. 포를 입고 있는 유복본 초상화의 경우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깃이 곧게 내려와 오른쪽으로 여민 옷을 입고 있는 조영복, 이인엽, 박세채의 유복본 초상은 직령포直領袍를 입고 있다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육 초상〉도10과 〈장만 초상〉도13의 유복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초상은 중국풍의 학창의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김육의 복식은 초상 위쪽에 쓰여 있는 영조의 찬문을 통해 윤건綸巾에 학창의를 입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장은 중국 촉나라 시대 제갈량이 즐겨 입었다고 알려진 복장입니다. 김육이 쓰고 있는 윤건은 제갈량의 성을 딴 제갈건, 또는 그의 별호를 딴 와룡관臥龍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만의 유복본 초상 역시 구름무늬가 있는 학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머리에는 윤건 대신 중국풍의 모자인 당건唐巾을 쓰고 있습니다. 당건 속에는 상투관이 보입니다. 또 왼손에는 금색 용 모양 손잡이가 있는 깃털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갈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1 조선시대 관복의 흉배

1454-1600	1600-1700	1800년 이후
문관 1품 공작	문관 당상관 운학	문관 당상관 쌍학
문관 2품 운안	문관 당하관 백한	문관 당하관 단학
3품 백한	무관 종2·4품 호랑이	무관 당상관 쌍호
무관 1, 2품 호표	무관 종2품 사자	무관 당하관 단호

4

雪鬢霞儀 外形內德
君子觀之 是無不識

– 孟永光, 〈金堉肖像讚〉 中

눈처럼 흰 머리와 신선 같은 풍채,
내면의 덕이 겉으로 드러나네
군자가 이를 보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없으리

- 맹영광, 〈김육 초상찬〉 중

각기 다른 얼굴,
서로 다른 빛깔

Visualization of Personality

경기도에는 예부터 60여 개소에 이르는 가묘家廟와 서원書院이 있었습니다. 명문가가 많고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기에 보관해온 초상화도 많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개관 이래로 경기 지역의 유수한 종중과 유림이 보관하고 있던 초상화를 기증·기탁받아 보존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선의로 한자리에 모인 수백 점의 초상화는 박물관의 든든한 근간인 동시에, 그 자체로 옛 초상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초상화는 정체성이 시각화되어 구현되는 서로 다른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홍경주 초상〉은 모사를 위한 초본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이며, 〈임우 초상〉은 내관의 정체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그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송시열 초상〉은 존경받는 성현의 이미지가 반복해서 제작되는 관습을 보여줍니다. 〈기계 유씨 초상〉과 채용신이 그린 〈초상〉을 통해서는 20세기에 접어들며 달라진 초상화의 제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ancient records, there were more than sixty family shrines and memorial halls for the great scholars and loyal subjects of the past in the Gyeonggi-do region. provides some support for the strong tradition of producing portraits. Since its establishment, Gyeonggi Province Museum has continued the project to conserve the portrait paintings which were donated or deposited by the renowned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Confucian scholars in Gyeonggido. The hundreds of portraits collected in the museum by many goodwill people formed at once the museum's most reliable foundation and a treasure house that show various aspects of the ancient portraits.

These various portraits show how different identities are visualized and represented. *Portrait of Hong Gyeongju* is exceptional because its sketch used for copying the portrait has been handed down, and *Portrait of Im Woo* deserves attention because the subject's identity as a eunuch was visually disclosed. *Portrait of Song Siyeol* shows the convention in which the image of respected sages was repeatedly produced, and *Portrait* by Chae Yongshin and *Portrait of Lady Yu* show what changes occurred in the production of portrait painting in the 20th century.

20

홍경주 초상

洪景舟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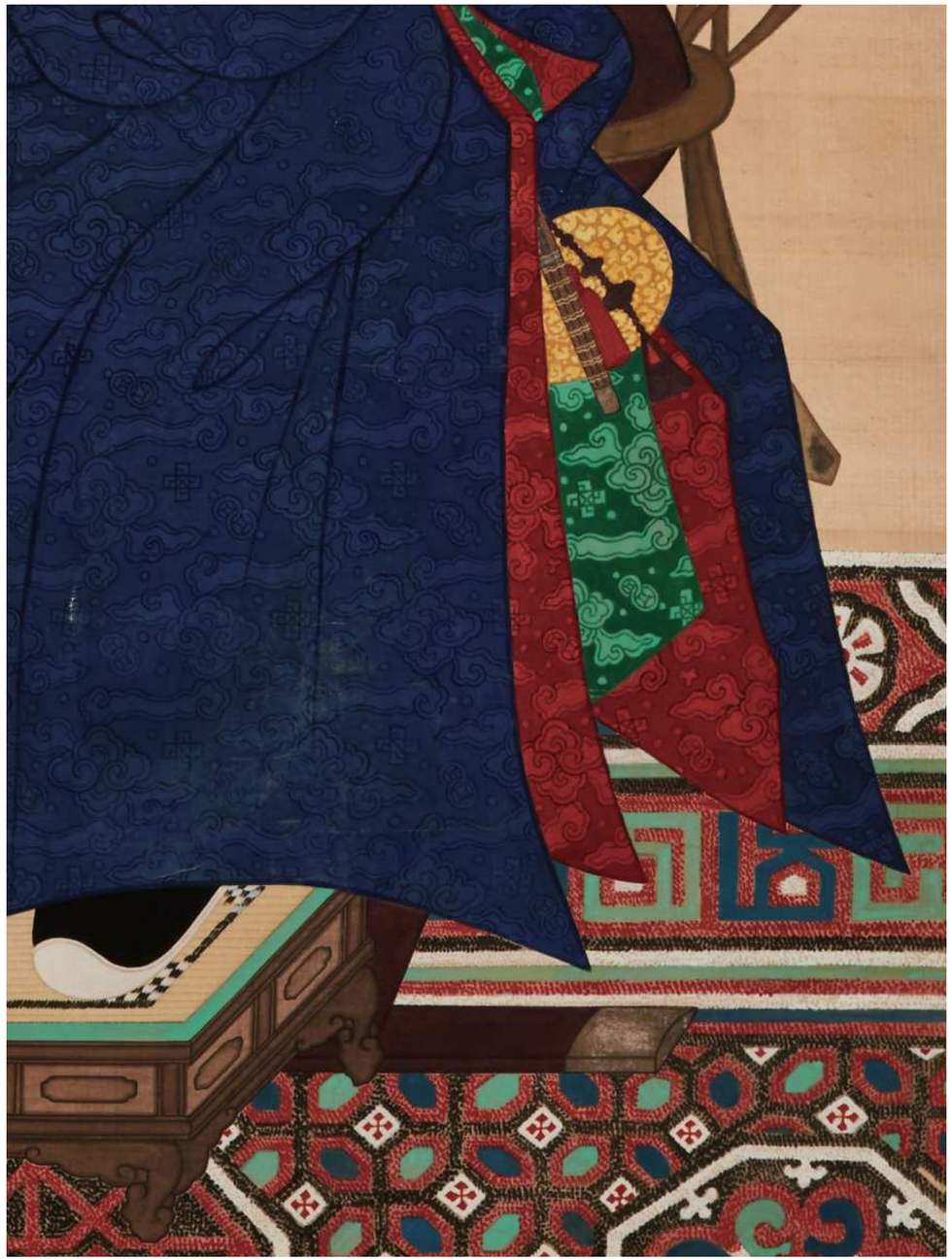
Portrait of Hong Gyeongju

조선, 18-19세기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8th-19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홍경주[?-1521]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제옹濟翁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정국공신靖國功臣으로 책록되었을 때 하사받은 공신상을 범본으로 하여 후대에 모사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정교한 필치로 안면, 터럭, 세부 문양을 정확하게 그렸으며 화사한 색을 고르게 입힌 기량으로 보아 뛰어난 화가의 솜씨로 보입니다.

단령의 옆트임 부분에 패도佩刀와 황낭黃囊 등의 장식적인 요소를 넣은 점이나 바닥의 채전 등은 16세기 초상화의 특징이지만, 발받침 위에 그린 화문석 문양이나 사모紗帽 양옆으로 뻗은 각의 무늬 표현 등에서는 18세기 이후의 양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1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

洪景舟肖像油紙草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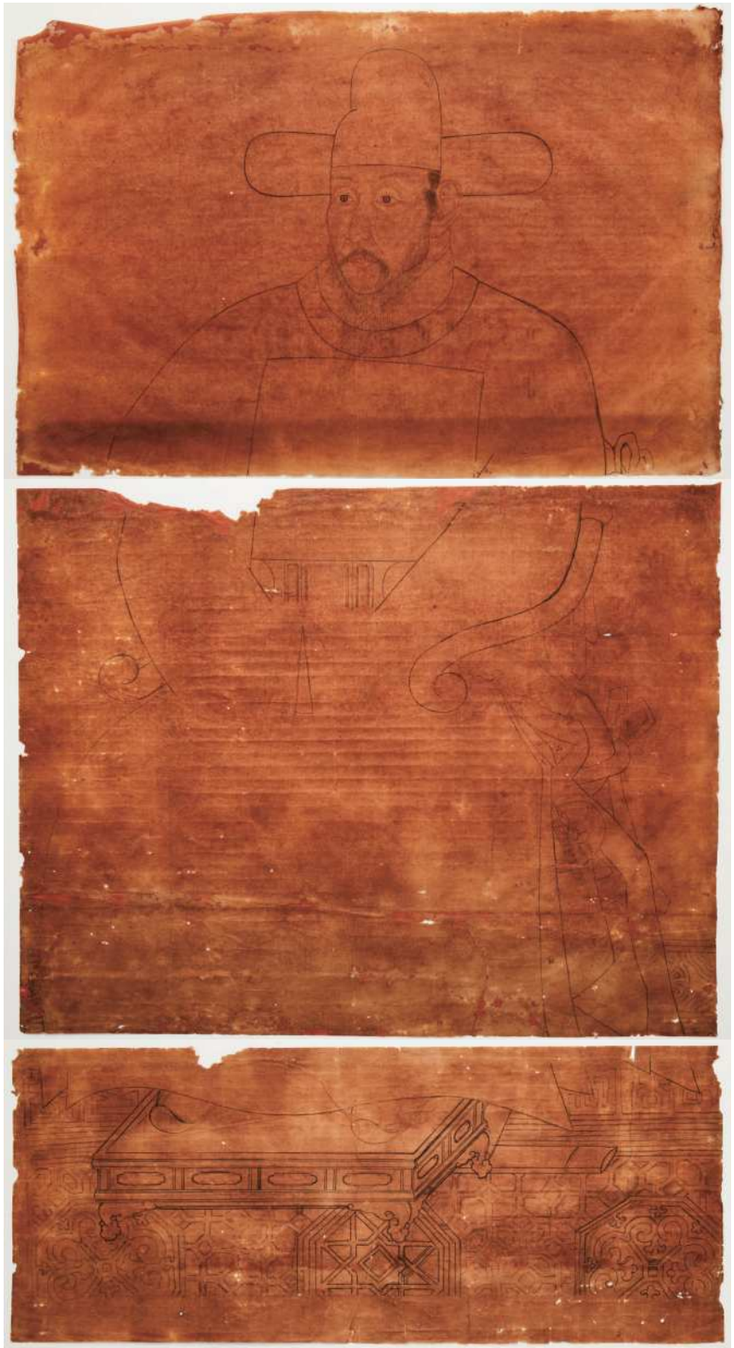
Sketch for the Portrait of Hong Gyeongju

명망 높은 인물의 초상은 종중이나 가문의
영당에서 보관되며 후대에 전해집니다.
옛 초상화가 낡거나 손상된 경우, 조상의 모습을
온전히 기리기 위해 이를 다시 그리곤 했습니다.
이 유지초본은 〈홍경주 초상〉을 다시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상화가 전승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종류의 사료입니다.

모두 3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는 나머지
2쪽보다 폭이 좁습니다. 곳곳에 '석石', '백白',
'홍紅' 등으로 해당 부분의 채색을 지정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조선, 18-19세기
경기도유형문화재

Joseon Dynasty
18-19th century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22

임우 초상

林祐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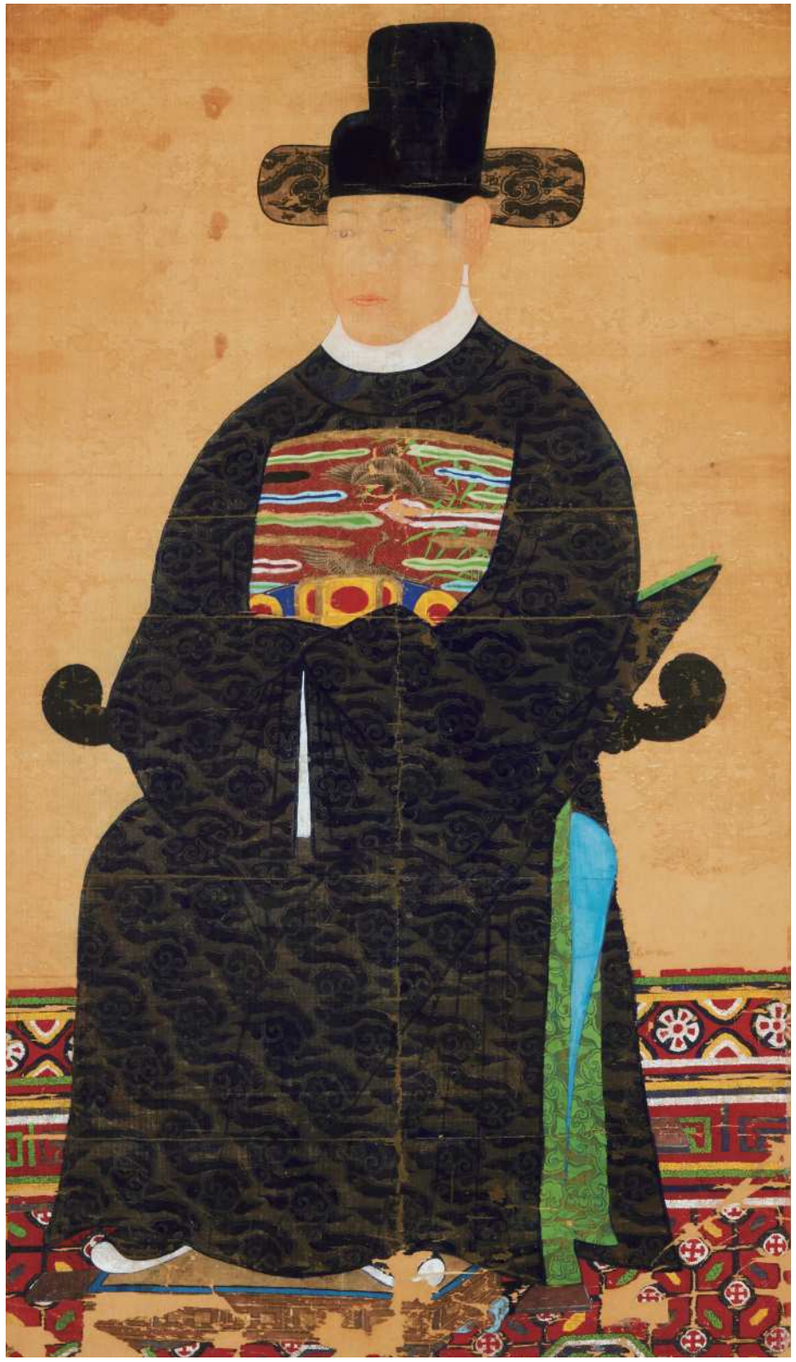
Portrait of Im Woo

조선 후기

late Joseon Dynasty

임우1562-1631는 조선 중기 내관內棺으로 자는 덕응德應, 호는 망우당忘憂堂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평안도 의주까지 호종하고, 진주에서 무공을 쌓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올랐습니다. 진주대첩 등에서 수많은 무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림 속 임우는 얼굴 왼편을 드러냈으며, 오사모에 어두운 흑단령을 갖추고 의자에 앉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17세기 공신상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후대에 다시 이모 된 작품으로 보입니다. 수염이 그려지지 않은 얼굴이 특징적인데, 이는 환관宦官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물게 전해지는 조선시대 내관 초상 중 하나입니다.



23

이돈상 초상

李敦相肖像

Portrait of Im Woo

이돈상181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후公厚, 호는 해석海石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명문 중 하나인 용인 이씨 가문의 인물이며, 공조판서와 한성부판윤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용인 이씨 후손들은 이 작품을 비롯하여 총 870여 점의 유물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쌍학 흉배가 있는 단령을 입고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는 반신상입니다. 얼굴의 윤곽은 적갈색 선으로 단정하게 잡아냈습니다. 눈물샘 부분의 붉은 기운이 세심하게 표현되었고 곱슬거리는 털의 질감 표현도 정교해, 화가의 뛰어난 솜씨를 짐작하게 합니다.

조선 후기

late Joseon Dynasty

24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

李敦肖像相油紙草本

Sketch for the Portrait of Lee Donsang

이돈상의 시복본 초상화를 제작하기 위해 반투명한 종이 위에 그린 초본입니다. 초본은 정본 초상화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밑그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색을 입히고 표현을 더해, 그 자체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 유지초본은 얼굴과 의복에 색을 입혔고, 반백의 수염을 세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사모와 금대 등도 정밀하게 그려 마치 완성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굴과 옷 일부는 그림의 뒷면에 색을 입히는 배채를 했습니다. 반투명한 종이의 성질을 활용해 비단에 정본을 만드는 작업을 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19세기

Joseon Dynasty
19th century

25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

李敦相肖像上綃墨畵

Sketch for the Portrait of Lee Donsang

경기도박물관이 용인 이씨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이돈상의 초상화는 총 4점입니다.
단령본과 금관조복본은 완성된 초상화이며,
유지초본과 상초묵화는 초상화가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는 유지에 그린 초본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얇은 초綃를 얹어 먹으로
옮겨내는, 이른바 상초의 결과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과
마찬가지로 얼굴 부위에는 앞뒤 모두에 섬세하게
색을 입혔습니다.

조선, 19세기

Joseon Dynasty
19th century

26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Portrait of Kim Joongman

김중만1681-1755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언양彦陽입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을 조정에 알림으로써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양무공신揚武功臣에 올랐습니다. 여러 곳의 군수와 부사를 거쳤으며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모에 단령을 입고 공수한 자세로 앉아 있는 노년기의 초상화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화첩 형식의 초상화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령에는 옷보다 연한 색으로 구름무늬를 그렸고, 가슴에는 무관임을 보여주는 사자 흉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문 무신 초상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조선, 18세기

Joseon Dynasty
18th century

27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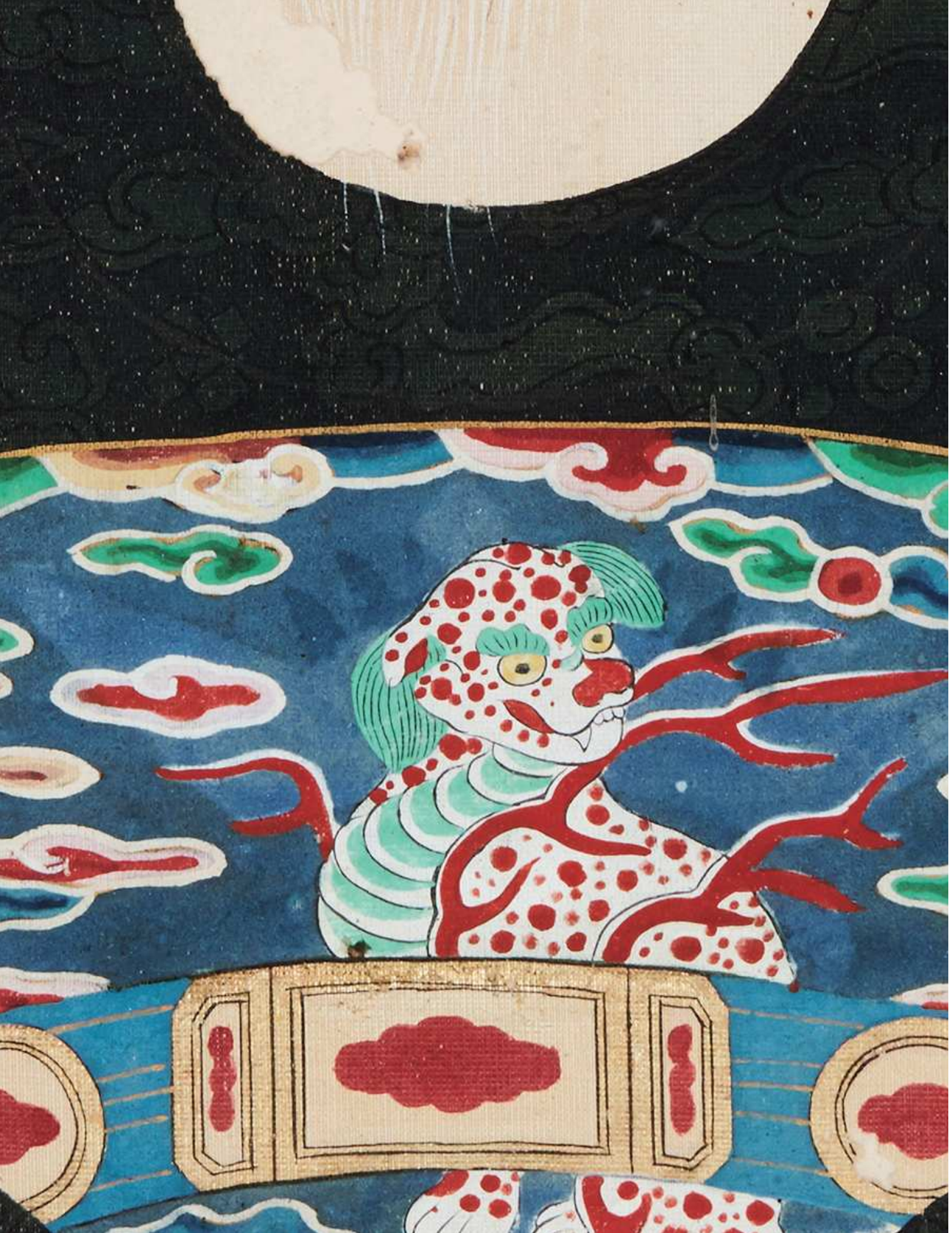
Portrait of Kim Joong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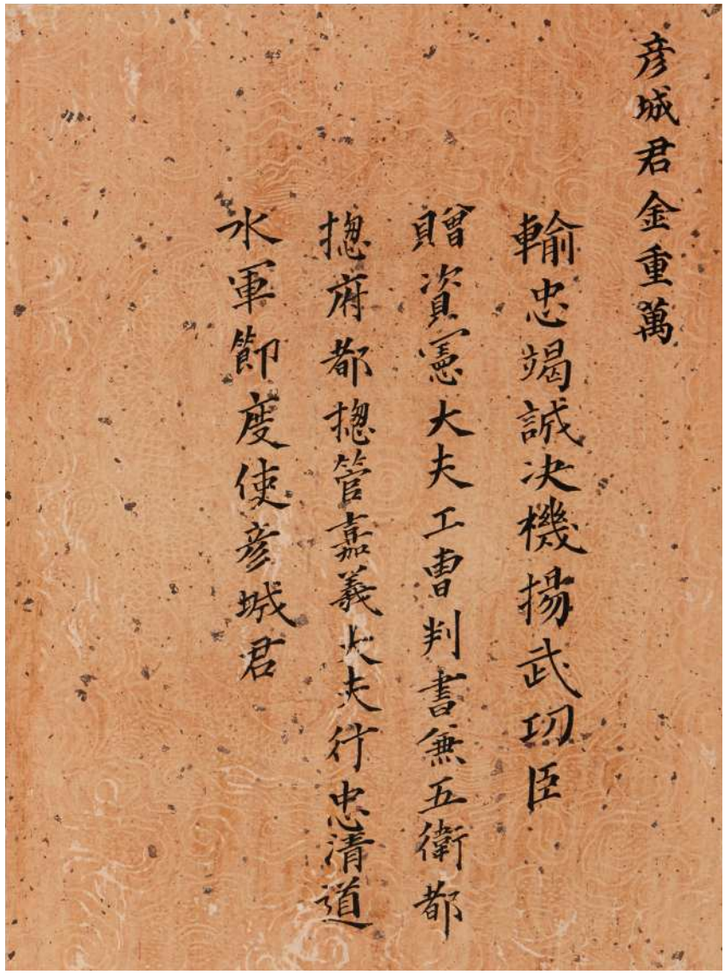
경기도박물관은 모두 4점의 김중만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는데, 3점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승정원일기』와 조현명趙顯命의 「훈부화상첩기勳府畵像帖記」의 기록에 비추어 1751년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합니다. 화첩의 맞은편에는 김중만의 이력을 적었습니다.

김중만의 노년기 모습을 담은 화첩본 초상화로, 전신본 초상화와 얼굴 표현이 매우 유사합니다. 세밀한 선으로 얼굴의 주름과 수염을 그렸으며 음영을 넣어 깊이감을 주었습니다. 사자 흉배가 있는 흑단령과 학정금대鶴頂金帶는 그림 속 인물이 높은 지위의 무신임을 말해줍니다.

조선, 1751년 경
보물

Joseon Dynasty
ca. 1751
Treasure





彦城君金重萬
輸忠竭誠決幾揚武功臣
贈資憲大夫工曹判書兼五衛都
摠府都摠管嘉義大夫行忠清道
水軍節度使彦城君

언성군 김중만
수충갈성결기양무공신
증 가헌대부 공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가의대부 행 충청도 수군절도사 언성군

28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Portrait of Song Siyeol

흰 방건을 쓰고 백색 포를 입은 송시열의 모습을 담은 반신상입니다. 눈썹과 수염은 속도감 있는 필선으로 그려냈고, 선과 명암을 사용하여 얼굴의 깊게 파인 주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진 의복의 선에서도 능숙한 붓질이 드러납니다.

송시열의 머리 양쪽 옆으로 홍직필洪直弼이 지은 찬문이 남아 있습니다. 글씨는 유한지劉漢芝가 예서로 적었습니다. 홍직필은 1803년에 쓴 편지에서 근래에 송시열의 초상화를 얻어 작은 족자로 만들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걸어놓고 재배再拜하면서 사모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조선, 19세기

Joseon Dynasty
19th century

稟剛大直方之資 致恢廓擴充之力 婆娑丘壑之中 確神龍之存身 翱翔雲霄之上 會儀鳳之覽德 爛用紫陽之名論 明天理而正人心 光闡素王之大義 尊中國而攘夷狄 行庸德而有餘 允矣克矜其細 守經事而不失 卓乎先立其大 嚴善利之判則截鐵斬釘 炳事物之幾則靈蓍神蔡 巖巖乎萬仞之壁 汪汪若千頃之海 自羅麗以來 未有盛於先生 吾知其爲大東元氣之所會也.

崇禎四庚辰復之上澣後學唐城洪直弼敬撰

杞溪兪漢芝謹書

굳고 크며 곧고 바른 자질을 갖고 태어나 넓혀서 확충하는
공력을 다하였네. 언덕과 골짜기에서 소요할 때에는
확연히 신룡이 몸을 보존하듯이 하였고, 높은 구름 위를
날 때에는 의봉이 덕을 보듯이 하였네. 자양(주자)의
뛰어난 논설을 익숙히 사용하여 천리를 밝혀서 인심을
바르게 하였으며, 소왕(공자)의 대의를 밝게 드러내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쳤네.

떳떳한 덕을 행하여 여유가 있었으니 진실로 작은
행실까지도 신중히 하였고, 떳떳한 도리를 지켜 어긋나지
않았으니 우뚝하게 먼저 그 큰 것을 확립하였네. 선과
이익의 판가름을 엄격히 한 것이 마치 철과 못으로 끊은
듯하였으며, 사물의 기미를 밝게 안 것이 신령스러운
시초와 거북점 같았네. 만 길 벽처럼 드높았으며, 천 이랑
바다처럼 드넓었네. 신라와 고려 이래로 선생보다
성대했던 이가 없으니, 내 이분이 대동의 원기가 모여서
나셨음을 알겠노라.

숭정사경진부지상한 후학 당성 홍직필 삼가 지음

기계 유한지 삼가 적음

29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Portrait of Song Siyeol

송시열1607-1689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이며
호는 우암尤菴입니다. 이조판서와 좌의정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노론의 영수로, 학문이 깊어 많은
이들에게 숭상받은 거유巨儒이기도 합니다.

송시열의 초상화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그려졌습니다. 그려진 초상화는
영당에 모셔지거나 때로는 개인이 소장하며
숭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채색이나
표현 방식에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보입니다. 안면의 필선은 경직되어 있고 수염의
묘사 방식도 다소 인위적입니다.

조선 말기

late Joseon Dynasty

30

초상

肖像

Portrait

지금까지 전해지는 송시열의 초상화는 서른 점이 넘습니다. 모든 그림에서 송시열은 복건이나 방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송시열은 조정에 나가긴 했으나 그때마다 다른 이의 공복을 빌려 입었기에, 자신의 복장으로는 심의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자의 복장이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말기에 그려진 것으로 표현이 다소 거칩니다.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 차림을 통해, 그림 속 인물을 마치 송시열과 같은 유학자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싶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선 말기

late Joseon Dynasty

31

초상
肖像

Portrait

석지石芝 채용신1850-1941은 20세기 초에 초상화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종의 어진을 비롯하여 이하응李昰應, 최익현崔益鉉 등 많은 인물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상업 공방을 운영하며 근대적인 초상화 주문 제작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깃과 도련, 소매에 검은색 선을 두른 녹색 학창의를 입고 서양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색의 잠을 꽂은 검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화면 왼쪽에 적힌 글을 통해 1915년 채용신이 그린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5년
채용신 蔡龍臣

Japanese Colonial Era
1915
Chae Yongsin

32

기계 유씨 초상

杞溪兪氏肖像

Portrait

기계 유씨의 47세 초상입니다. 그의 남편 안필호 安弼鎬의 초상이 함께 전해집니다. 얼굴은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나 대례복을 입은 신체의 표현은 다소 도식적입니다.

조선시대 그려진 여성 초상화는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초상화 제작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초상화의 제작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채용신과 같은 화가는 공방을 두고, 신문에 여성 초상화 제작을 공개적으로 주문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늘어난 수요와 변화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복장을 정해 두고, 주문한 이의 사진에 따라 얼굴만 그려 제작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일제강점기, 1913년

Japanese Colonial Era
1913

칼럼 3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기증과 보존

이영은 | 경기도박물관 학예운영실장

경기도는 왕실과 도성을 둘러싼 특별하게 설정된 공간적 범위를 갖는 곳으로,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가 근본의 땅'이라 불리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들이 이곳에 터를 잡아 활동하였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유적지와 더불어 가문의 대를 이어 전해져 오고 있는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국가와 경기도의 보물로 지정된 25점을 비롯하여 120여 점의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기도 유수有數의 사대부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초상화는 조선 사대부 유산의 정수精髓로 꼽히는 유물입니다. 선조의 모습을 그린 단순한 그림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림 속 인물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안 대대로 보관해 온 초상화를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기증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자 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증 유물을 인수해올 때면 아파트로 옮기고 나니 더 이상 유물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기증자분들로부터 종종 듣곤 합니다. 최근 들어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서 면적도 좁아지고, 다락이나 별도의 창고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더 이상 보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크게 변하는 환경과 비단과 종이에 그려진 탓에 각종 해충에 의해 손상이 될 수 있어 집안에서 초상화를 보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근대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가문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증자분들께서는 예전에는 쌀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선조의 유품을 지켜왔는데, 자식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이 덜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받아들이시지만, 못내 아쉬움과 섭섭함에 묻어납니다.

기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선조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이것과 맞물린 우리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중에서는 초상화를 박물관에 기증하고 나면, 시제와 문중의 행사 때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1996년 개관 초기부터 모사본을 제작하여 증정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기증받은 초상화의 원본은 잘 보관하고, 원본과 똑같이 모사본을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여 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우가 실제로 많은 문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에 처음 들어올 때의 초상화의 상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치 방금 전 그려진 것과 같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서 그림의 바탕 재료인 비단이 벌레가 먹어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 구멍 자국을 메우기 위해 후대에 덧칠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비단과 배접지가 분리되고, 꺾임이 심해지며 접착력이 약해진 그림의 안료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초상화가 대부분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니, 사용할 때 말았다 펴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러한 훼손이 더 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림이 부분적으로 없어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삽도 1, 2

삽도 1 보존처리 전 〈정몽주 초상〉

삽도 2 〈임우 초상〉 입수 당시

박물관에 기증된 초상화는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묵은 때를 벗기고, 원본과 뒷면에 붙여진 배접지를 분리합니다. 비단의 훼손 상태에 따라 찢어진 곳은 붙이고, 구멍 난 곳은 메우고, 꺾인 곳은 반듯하게 펴는 과정을 거칩니다.삽도 3 보존 처리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제자리를 찾는 작업은 비단과 종이, 전통 풀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림 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정교한 기술,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삽도 3 초상화 보존처리 과정

그동안 박물관에서는 더 많은 관람객에게 초상화를 공개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상설전시는 물론 초상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삽도 4 특히 해마다 열리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박물관의 소장품이 아이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는데, 초상화는 매해 단골 소재입니다.삽도 5 특히 2021년에는 초상화를 통해 옛 선조들을 마주하여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나의 자화상 그리기'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주밀라노 총영사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국 서화 문화재 보존 교육 국제 워크숍에서는 이탈리아 복원 전문가들에게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한 초상화를 소개하고, 조선시대 족자형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조관빈 초상의 제작 방법을 재현하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외에도 박물관의 기증 활동과 초상화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삽도 4《초상, 영원을 그리다》특별전 전경

삽도 5.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경기도박물관은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존하면서, 전시를 통해 진본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초상화가 나만의 보물, 가문의 보물에서 우리의 모두의 보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5

오늘, 우리의 초상

Portraits Today

경기도박물관은 매년 박물관 소장품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1년에 열린 대회의 주제는 초상화였습니다. 《2021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옛 초상화를 꼼꼼하게 관람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옛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어린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그려냅니다. 참가 어린이의 다채로운 모든 작품은 슬라이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중 상을 받은 18명 어린이의 이야기를 인터뷰 영상에 담았습니다. 옛 초상화에 스스로 글을 적어 남기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Gyeonggi Province Museum has held a children's painting competition annually under the theme related to the museum collection. The theme of the 2021 competition was portrait painting.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2021 Gyeonggi Province Museum Portrait Painting Competition carefully observed the portraits displayed in the museum and then painted themselves by referring to what they observed.

Like our ancestors, children paint themselves in various ways. Visitors can appreciate the works of all participating children in the slide show and the interview video with the 18 children who won the prize. As the old portrait painters wrote down on the painting, these children talked about their works.

고가은

고예준

공서은

권지영

김시준

김어진

김태규

김희수

문장곤

신성규

여정후

위준우

이재민

이지후

정예원

조진영

최은빈

허완

巖巖乎萬仞之壁
汪汪若千頃之海

-洪直弼, 〈宋時烈肖像讚〉中

만 길 벽처럼 드높았으며
천 이랑 바다처럼 드넓었네

-홍직필, <송시열 초상찬> 중

나가며

시대가 변하며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남기곤 합니다. 그림의 자리는 사진과 영상이 대신하고, 휴대 전화 화면과 온라인 플랫폼이 그 바탕이 되어줍니다. 더욱더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초상은 인물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옛 초상화가 가지는 친근한 매력을 모두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pilogue

As time has changed, it became very rare for painters to paint portraits in the traditional style. Nevertheless, we still leave our appearance as an image. Paintings have been displaced with photography and video, and the smartphone screen and online platform serve as their background. Now it is possible to visualize one's identity in easier and more various ways. All portraits convey lots of varied stories about the figure, regardless of when they were created. We hope that you may experience the familiar charm of traditional Korean portraits as the medium to deliver someone's mind and heart.

서신지소棲神之所-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에 관하여

The Place for the Soul-The Portrait Collection of Gyeonggi Province Museum

정윤회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Jung Yunhoe
Curator, Gyeonggi Province Museum

초상화는 경기도박물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이다.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수장사收藏史의 시작은 약 3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부터 9년간 운영되었던 경기도 향토사료관은 경기도박물관의 전신前身에 해당한다.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개관하면서 향토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 3,000여 점을 이어받았는데, 그 가운데 기증 및 위탁관리 중인 초상화도 3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이 자리를 잡으며 점차 본격적인 소장품 수집 활동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기증 및 연구를 통해 박물관의 초상화 수가 늘어나 그 중요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2022년 현재 초상화는 도자, 출토 복식 등과 함께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손꼽힌다.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된『경기도박물관 명품선』은 점차 커지는 초상화 컬렉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4년에 발간된『경기도박물관 명품선 Ⅰ』에서는 도자, 서화, 전적·고문서, 고고유물, 민속공예, 복식으로 주요 소장품을 구분하고, 초상화를 서화의 일부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뒤 만들어진『경기도박물관 명품선 Ⅱ』에는 '경기도의 초상화'가 단독 장으로 분류되어 책의 서두에 실려 있다.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를 개괄하고 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특징을 약술할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이 소장하거나 위탁 보관하고 있는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초상화의 정보를 정리하고,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여 목록화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기도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초상화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초상화 수집과 활용

2022년 현재 경기도박물관이 소장, 또는 위탁 보관하고 있는 초상화는 완성본과 초본을 모두 포함하여 약 230여 점에 이른다. 이 중 중국 초상화가 약 120점이고,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초상화가 110여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다면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경기도박물관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유물 수집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에, 앞으로도 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초상화는 비단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매우 높다.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이 29점으로, 보물이 13점, 경기도 유형문화재가 15점, 경기도 문화재자료가 1점이다. 그 밖에도〈임우 초상〉도 22이나〈송시열 초상〉도 28과 같이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초상화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재 지정 신청 작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등록 문화재의 수가 더 늘어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는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학계와 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왔다.《조선시대 사대부: 경기명가 기증유물 특별전》2010,《천년의 뿌리, 용인 이씨: 경기명가 기증유물 특별전》2013,《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2018 등의 특별전시는 각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을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 여러 문중에서 보관하다 경기도박물관으로 오게 된 많은 수의 초상화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초상화를 주제로 한 첫 기획전은 2008년에 개최된《초상, 영원을 그리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초상화》이다. 이 전시에서는 20여 년에 걸쳐 박물관이 수집한 소장품 및 위탁품 초상화 30여 점을 한자리에서 소개했다. 대중과 학계의 관심 속에 석 달간 진행되었던 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열린 초상화

기획전《열에 일곱》은 초상화를 다룬 경기도박물관의 두 번째 전시다. 《열에 일곱》은 전시를 통해 같은 인물을 그린 여러 초상화를 함께 소개하며 초상화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기획 의도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 초상화전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한층 더 풍부해진 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초상화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박물관은 전문가와 함께 상태가 좋지 않은 초상화를 보존 처리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로 제작해 남겼다. 각종 학술 행사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해 왔다. 2008년의 첫 초상화 기획전 도록에 수록된 글에서 조선미는 경기도박물관의 주요 초상화 소장품을 개괄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초상화 문화를 조망함으로써 박물관 소장품의 의미를 부각한 바 있다.[1] 그 밖에도 조인수는『경기도박물관 명품선 Ⅱ』에 수록된 글을 통해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상화의 미술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10여 년간 새로 소장하게 된 주요 유물을 소개했다.[2] 이 외에도 기증전 도록과 기증자료집, 학술회의 자료집 등의 형식으로 개별 초상화를 다룬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간되었다.[3]

초상화의 기증과 위탁

경기도박물관이 현재 소장·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및 일제 강점기의 초상화는 모두 110점이다. 그중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89점이며, 나머지 21점은 소장자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인 위탁품이다. 위탁품은 그 소유권이 각 소장자에게 있으나 경기도박물관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유물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박물관에 이를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박물관은 해당 유물의 가치 및 여러 조건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위탁이 결정되고나면 소장자는 소중한 유물을 박물관의 통제된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박물관은 작품을 온전히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박물관은 초상화를 위탁받는 경우 일반적인 수탁受託 기관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소장자에게 초상화가 박물관 안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통해 위탁이 자연스럽게 기증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장품은 입수 경위에 따라 다시 구입품과 기증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소장 초상화 89점 중 구입품은 33점이며 나머지 56점은 모두 기증품이다. 이는 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이 뜻있는 개인과 문중, 유림의 선의에 크게 기대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증 초상화로는 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으로부터 기증받은 2점의 <조영복 초상> 도 01, 02을 들 수 있다. 득의작得意作으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이 작품은 경기도 향토사료관 시기에 기증받은 것으로, 경기도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소장품으로 편입되었다. 개관 이후에도 계속 초상화 수증受贈은 이어졌다. 2000년에 12점이던 초상화 기증품은 2010년에 31점, 2020년에는 53점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늘었다.

초상화를 꾸준하게 기증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박물관이 기증과 보상,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증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는 것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 또한 경기도박물관으로의 기증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조인수가 이미 한 차례 지적한 것과 같이, 경기도박물관의 초상화 컬렉션은 활성화된 기증 문화를 바탕으로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장한 초상화의 수량을 따지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작품이 경기도박물관에 비해 더 많으나, 이는 1910년대부터 모아온 수집품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4]

소장품과 위탁품의 증가 경향을 함께 살펴보면 경기도박물관의 조선시대 초상화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초상화 소장·위탁품 중 개관부터 2000년 사이에 입수된 작품은 모두 30점이다. 이후 2010년까지 36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3점의 작품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도 11점의 초상화가 박물관의 수장고에 더해졌다. 종합박물관으로서 경기도박물관이 수집 대상으로 삼는 유물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과 한정적인 소장품 구입 예산을 고려한다면, 초상화의 수가 이처럼 꾸준히 늘어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물관의 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삽도 1. 〈경신공주 초상〉, 조선 후기, 56.0×42.7

삽도 2. 〈진각국사 초상〉, 조선, 19세기, 111.0×75.5

삽도 3. <정몽주 초상>, 조선, 16세기, 172.7×104.0

1
조선미,「초상화의 세계-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초상, 영원을 그리다』(용인: 경기도박물관, 2008), p.148-163.

2
조인수,「조선, 초상화의 왕국」,『경기도박물관 명품선 Ⅱ』(용인: 경기도박물관, 2021a), p.334-343.

3
주요 최근 논고로는 이성훈,「경기도박물관 소장 조관빈 초상화 연구」,『조선후기 경기사대부의 계보와 정치활동-양주조씨를 중심으로』, 2022년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용인: 경기도박물관, 2022), p. 81-104; 조인수,「매산 홍직필 후손가 기증 초상화에 대하여」,『매산 홍직필과 남양 홍씨』(용인: 경기도박물관, 2021b), p.159-182; 조선미,「조선시대 후기의 사대부 초상화-경기도박물관 용인이씨종중 기증초상화를 중심으로」,『천년의 뿌리, 용인이씨』(용인: 경기도박물관, 2013), p.149-172.

4
조인수, 앞의 글(2021b), p.335.

경기도박물관 초상화의 유형

조선시대 제작된 초상화는 그림에 그려진 대상에 따라 크게 어진御眞, 사대부상, 승상僧像, 여성 초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진은 왕의 초상화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다수의 어진이 제작되고 진전眞殿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물의 수는 매우 적다. 사대부상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이는 그림을 제작한 주체에 따라 다시 사적 초상화와 공적 초상화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혹은 다른 이에게 부탁하여 그린 그림을 사적 초상화라 한다면, 공신상과 기로도상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여 제작된 작품이 공적 초상화에 해당한다.[5]

진영眞影으로 불리기도 하는 승상 역시 조선시대에 여러 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운영하는 이념으로서 유교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개인의 신앙으로서 불교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그 명맥이 이어졌다. 추앙받는 고승도 여럿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초상이 그려져 대대로 숭앙崇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면 여성 초상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예가 많지 않고 전해지는 수도 매우 적다. 왕비의 초상이 그려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 유물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유교적인 관념 아래에서 남성인 화가가 여성 대상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대부분은 사대부상으로 모두 102점이다. 형식상으로는 관복본 초상화가 76점으로 대다수이고, 유복본 초상화가 나머지 26점을 차지한다. 소장품의 다수가 경기도의 문중과 유림에서 기증받은 것이기에, 후손들의 손에서 전해오며 향사享祀의 대상으로 그 역할을 하던 공적 초상화들이 컬렉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사묘祠廟와 서원의 사우祠宇에서 선현의 초상을 모시고 제향祭享하는 일이 빈번했다. 19세기에 사원이 대규모로 정리되면서 영당影堂이나 종가로 옮겨진 초상들은 자손들에 의해 극진하게 대우받으며 보전되다, 다시 박물관으로 전해진 것이다.

관복본 사대부상 가운데에도 전신좌상이 39점, 반신상

5
강관식은 단순히 복식의 형식이나 제작 주체만으로 '공적 초상화'와 '사적 초상화'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작품에 얽힌 상황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단순히 제작 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강관식, 「공적 초상화와 사적 초상화-진재해(秦再奚) 필(筆) 조문명(趙文命)의 〈분무공신상(奮武功臣像)〉과 〈학암무송상(鶴巖撫松像)〉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4(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9), p.72-125 참조.

삽도 4. 〈이중로 초상〉, 조선, 17세기, 169.0×94.1

삽도 5. 〈유순정 초상〉, 조선, 1720년 경, 188.0×99.8

37점으로 형식과 크기가 다양하다. 그 자체로 조선시대 관복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적史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대부상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초상과 승상 역시 주목할 만한 자료다. 태조 이성계의 장녀인 경신공주慶愼公主의 초상삽도 1은 전세품이 적은 조선시대 여성 초상 중 하나로 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계 유씨 초상〉도 32은 일제강점기에 증가한 여성 초상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진각국사 초상眞覺國師肖像〉삽도 2은 조선 후기 고승 진영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정교한 필치가 잘 드러난다.

삽도 6. <홍명호 초상>, 조선, 1809년, 128.8×84.0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특징과 의미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에는 뛰어난 작품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 자체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조선미가 언급한 것처럼 소장품만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걸친 사대부 초상화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16세기의 〈정몽주 초상 鄭夢周肖像〉삽도 3으로부터 시작해 17세기의 〈이중로 초상李重老肖像〉삽도 4, 18세기의 〈유순정 초상柳順汀肖像〉삽도 5, 19세기의 〈홍명호 초상洪明浩肖像〉삽도 6에 이어 일제강점기의 〈안희묵 초상安羲默肖像〉삽도 7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간 변해온 초상화의 경향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초상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초상화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도박물관 컬렉션의 특징이다.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본 등은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안에서 선조의 모습을 차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보관하다 박물관에 전달된 것들이다. 용인 이씨 문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이돈상의 초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박물관은 관복본 〈이돈상 초상〉도 23과 금관조복본 〈이돈상 초상〉삽도 8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관복본을 제작할 때 사용되었던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도 24,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도 26 등이 함께 전해졌다. 이외에도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도 21은 초상화를 모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드문 자료이다.

초상화가 보전되고 전승되어온 방식을 보여주는 유물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점도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가치를 높인다. 박물관 소장 초상화 중 20여 점 이상이 초상함을 비롯한

삽도 7. <안희묵 초상>, 일제강점기, 1912년, 78.8×53.5

삽도 8. <이돈상 초상>, 조선, 19세기, 79.5×50.3

부속 요소들과 함께 기증되었다. 다양한 재질과 장식의 초상함은 초상화 전승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그 밖에도 〈임우 초상〉 등과 같이 초상화를 감싸던 보자기가 전해지거나, 초상화 보존을 위한 전통 방식의 방충제나 각종 기록 등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병현 초상趙秉鉉肖像〉은 특이하게도 초상함을 올려두고 모시던 의자 형식의 받침대삽도 9가 함께 있어, 문중에서 초상화가 흠숭欽崇되던 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초상화 속 인물을 말해주는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는 점 또한 박물관 초상화 컬렉션의 연구를 돕는다. 일례로 〈이재학 초상〉의 경우 『지포유고芝圃遺稿』삽도 10 등의 문집과 『황정고荒政考』와 같은 그의 저서, 연행 사절로 다녀온 때의 기록을 모은 『일기초日記草』 등이 박물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그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서 병풍이나, 그가 받은 교지와 하선장下賜狀 등도 다수 전해진다. 이재학의 사후에 순조純祖가 시호를 내린 〈시호교지諡號矯旨〉삽도 11까지 함께 있으니, 소장품을 통해 초상화 속 인물의 삶과 뜻을 모두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컬렉션만의 독특한 가치와 특징은 문중으로부터의 기증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초상화는 유물이면서도 선조의 혼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에, 집안에서는 이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초상화가 보관되던 영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 깃드는 곳棲神之所'이었다. 경기도박물관에 초상화가 전시되면, 단정한 복장으로 방문해 선조의 모습 앞에서 예를 갖추는 고령의 관람객을 만나는 일은 지금도 드물지 않다. 선인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 이제 박물관에 모인다. 경기도박물관은 이 시대의 '서신지소'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삽도 9. 초상함 받침대, 조선 후기

삽도 10. 『지포유고』, 이재학, 조선 후기, 21권 13책

삽도 11. 이재학 시호교지, 조선, 1820년, 60.6×108.5

표 1. 경기도박물관 소장·위탁 조선시대-일제 강점기 초상화 목록[6]

순번	구분	소장품번호	명칭		수량	작가	제작시기		규격	입수 년도	입수 형식	지정구분	비고
01	소장	002562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1	조영석 趙榮祏	조선	1725년	119.5×76.5	1994	기증	보물	유복전신좌상
02	소장	002563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1	진재해 秦再奚	조선	1725년	154.0×80.0	1994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03	소장	003480	이왕가 초상	李王家肖像	1		대한제국	1919년	103.5×37.4	1999	기증		관복반신상 사진
04	소장	003563	오명항 초상	吳命恒肖像	1		조선	18세기말 ~19세기초	67.5×56.2	1997	기증		관복반신상
05	소장	003591	황희 초상	黃喜肖像	1		조선	후기	80.8×57.3	1998	기증		관복반신상
06	소장	004598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49.9×34.8	2000	구입		유복반신상
07	소장	004599	원인손 초상	元仁孫肖像	1		조선	18세기	49.0×39.2	2000	구입		관복반신상
08	소장	004600	홍억 초상	洪檍肖像	1		조선	후기	50.3×34.6	2000	구입		관복반신상
09	소장	004601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50.8×35.5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0	소장	004602	홍봉한 초상	洪鳳漢肖像	1		조선	19세기	61.9×46.5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1	소장	004603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50.7×35.4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2	소장	004604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49.8×35.1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3	소장	004605	조종현 초상	趙宗鉉肖像	1		조선	후기	48.7×35.6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4	소장	004606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48.7×35.3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5	소장	004607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50.3×34.7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6	소장	004608	초상	肖像	1		조선	19세기	48.5×35.3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7	소장	004609	초상	肖像	1		조선	후기	49.0×35.5	2000	구입		관복반신상
18	소장	004661	이지란 초상	李之蘭肖像	1		조선	후기	72.7×53.2	2000	기증		관복반신상
19	소장	004662	이중로 초상	李重老肖像	1		조선	17세기 초	169.0×94.1	2000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20	소장	004734	송언신 초상	宋言愼肖像	1		조선	1604년경	167.0×93.0	2000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21	소장	004735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1		조선	18세기	150.7×86.3	2000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22	소장	004736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1		조선	18세기	81.0×60.5	2000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유복반신상
23	소장	004754	정주영 초상	鄭周永肖像	1		조선	말기	128.0×61.5	2001	기증		유복전신의좌상
24	소장	005046	초상	蔡龍臣作肖像	1	채용신 蔡龍臣	일제 강점기	1915년	100.6×74.5	2002	구입		유복전신의좌상
25	소장	005161	구봉당대사 초상	龜峰堂大師肖像	1		조선	후기	108.0×77.0	2003	구입		전신좌상
26	소장	005178	황성원 초상	黃性元肖像	1		조선	17세기 전반	184.5×104.5	2003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27	소장	005179	황진 초상	黃進肖像	1		조선	17세기	172.0×105.0	2003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28	소장	005182	무관 초상	武官肖像	1		조선	말기	58.0×40.5	2003	구입		관복반신상
29	소장	005297	공민왕과 노국공주 초상	恭愍王魯國大長公主肖像	1		조선		73.0×56.0	2004	구입		반신상
30	소장	005396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1		조선	17세기말 -18세기 초	175.0×93.5	1997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31	소장	005397	박세채 초상	朴世菜肖像	1		조선	17세기 말 -18세기 초	179.0×103.0	1997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유복전신의좌상
32	소장	005398	박세채 초상	朴世菜肖像	1		조선	17세기 말 -18세기 초	180.7×94.0	1997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33	소장	005403	심환지 초상	沈煥之肖像	1		조선	1800년 경	149.0×89.2	2004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34	소장	006228	임연 초상	任 肖像	1		조선	18세기	167.0×95.0	2005	기증	경기도 문화재자료	관복전신의좌상
35	소장	006229	문인 초상 초본	文人肖像草本	1		조선	17세기 후반 -18세기초반	82.5×57.5	2005	기증		유복반신상
36	소장	006281	임방 초상	任 肖像	1		조선	1720년 경	75.5×45.8	2006	구입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반신상
37	소장	006479	정몽주 초상	鄭夢周肖像	1		조선	1555년 경	172.7×104.0	2006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38	소장	006481	초상	肖像	1		조선	말기	117.5×57.5	2006	구입		유복전신좌상
39	소장	006482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1		조선	말기	83.5×44.5	2006	구입		유복반신상
40	소장	006486	경신공주 초상	慶愼公主肖像	1		조선	후기	56.0×42.7	2006	기증		반신상

순번	구분	소장품번호	명칭		수량	작가	제작시기		규격	입수 년도	입수 형식	지정구분	비고
41	소장	006487	이애 초상	李薆肖像	1		조선	후기	56.0×42.8	2006	기증		관복반신상
42	소장	006503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1		조선	17세기 후반	128.8×58.6	2007	구입		관복전신의좌상
43	소장	006834	유순익 초상	柳舜翼肖像	1		조선	17세기	187.7×102.0	2007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44	소장	006837	허전 초상	許傳肖像	1		조선	19세기	136.0×71.5	2008	기증	보물	유복전신의좌상
45	소장	006842	진각국사 초상	眞覺國師肖像	1		조선	19세기	111.0×75.5	2008	구입		전신의좌상
46	소장	006881	신익균 초상	申益均肖像	1		일제 강점기	1919년	115.3×65.6	2008	구입		유복전신좌상
47	소장	006882	신익균 초상 초본	申益均肖像草本	1		일제 강점기	1919년	110.0×54.5	2008	구입		유복전신좌상
48	소장	006883	신익균 초상 초본	申益均肖像草本	1		일제 강점기	1919년	110.5×54.8	2008	구입		유복전신좌상
49	소장	006897	이재학 초상	李在學肖像	1		조선	19세기	113.8×57.4	2009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50	소장	006898	이재학 초상	李在學肖像	1		조선	19세기	76.5×57.2	2009	기증		유복반신상
51	소장	006899	이돈상 초상	李敦相肖像	1	조영석 趙榮祏	조선	19세기	79.5×50.3	2009	기증		관복반신상
52	소장	006900	이돈상 초상	李敦相肖像	1	진재해 秦再奚	조선	19세기	70.3×50.6	2009	기증		관복반신상
53	소장	006901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	李敦相肖像 上綃墨畵	1		조선	19세기	86.0×62.5	2009	기증		관복반신상
54	소장	006902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	李敦相肖像 油紙草本	1		조선	19세기	69.0×49.0	2009	기증		관복반신상
55	소장	007222	강세황 초상	姜世晃肖像	1		조선	18세기	58.8×40.0	2009	구입		관복반신상
56	소장	007234	초상	肖像	1		조선	말기	95.5×57.4	2009	구입		관복반신상
57	소장	008452	이세백 초상	李世白肖像	1		조선	18세기	174.4×88.0	2011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58	소장	008453	이의현 초상	李宜顯肖像	1		조선	1732년	169.2×98.0	2011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59	소장	010969	유수 초상	柳綏肖像	1	진재해 秦再奚	조선	1726년	167.3×90.0	2002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60	소장	010972	유순정 초상	柳順汀肖像	1		조선	1720년 경	188.0×99.8	2002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61	소장	010974	유홍 초상	柳泓肖像	1		조선	18세기 초	54.5×65.5	2013	기증		관복반신상
62	소장	011381	홍명호 초상	洪明浩肖像	1		조선	후기	61.5×59.0	2012	기증		유복반신상
63	소장	011382	홍명호 초상	洪明浩肖像	1		조선	1809년	128.8×84.0	2012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64	소장	011383	초상	肖像	1		조선	1812년	93.3×54.8	2012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65	소장	011531	임우 초상	林祐肖像	1		조선	후기	176.0×116.0	2016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66	소장	011576	조관빈 초상	趙觀彬肖像	1		조선	1750년 경	144.0×76.0	2016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67	소장	011577	조관빈 초상	趙觀彬肖像	1		조선	1745년	166.0×66.0	2016	기증		관복반신상
68	소장	011578	조관빈 초상	趙觀彬肖像	1		조선	1748년		2016	기증		관복반신상
69	소장	011579	조관빈 초상 유지초본	趙觀彬肖像 油紙抄本	1		조선	18세기	54.7×40.7	2016	기증		관복반신상
70	소장	011580	조관빈 초상 유지초본	趙觀彬肖像 油紙抄本	1		조선	18세기	56.2×41.7	2016	기증		관복반신상
71	소장	011581	조관빈 초상 유지초본	趙觀彬肖像 油紙抄本	1		조선	18세기	59.2×44.7	2016	기증		관복반신상
72	소장	012288	홍경주 초상	洪景舟肖像	1		조선	18-19세기	167.0×95.0	2016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73	소장	012290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	洪景舟肖像 油紙抄本	1		조선	18-19세기	58.0×88.0 76.5×96.0 40.0×97.0	2018	기증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74	소장	012295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1	채용신 蔡龍臣	조선	18세기	128.8×58.6	2017	기증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75	소장	012297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1		조선	1751년 경	54.5×75.6	2017	기증	보물	관복반신상
76	소장	012298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1		조선	1751년 경	42.0×29.0	2017	기증	보물	관복반신상
77	소장	012382	안희묵 초상	安羲默肖像	1		일제 강점기	1912년	78.8×53.5	2018	구입		관복전신좌상
78	소장	012383	안정환 초상	安正煥肖像	1		일제 강점기	1912년	77.0×52.8	2018	구입		관복전신좌상
79	소장	012384	경주김씨 초상	慶州金氏肖像	1		일제 강점기	1912년	76.0×52.7	2018	구입		전신좌상
80	소장	012385	안치원 초상	安致元肖像	1		일제 강점기	1912년	101.0×62.0	2018	구입		관복전신의좌상

순번	구분	소장품번호	명칭		수량	작가	제작시기		규격	입수 년도	입수 형식	지정구분	비고
81	소장	012386	한양 조씨 초상	漢陽趙氏肖像	1		일제 강점기	20세기 초	76.0×51.0	2018	구입		전신좌상
82	소장	012387	기계 유씨 초상	杞溪兪氏肖像	1		일제 강점기	1913년	102.2×54.2	2018	구입		전신의좌상
83	소장	012664	홍직필 초상	洪直弼肖像	1		조선	19세기	61.5×38.0	2018	기증		유복반신상
84	소장	012665	홍직필 초상	洪直弼肖像	1		조선	20세기	82.0×42.0	2018	기증		유복반신상
85	소장	012666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1		조선	19세기	129.5×60.5	2018	기증		유복반신상
86	소장	012666	주자 초상첩	朱子肖像	1		조선	19세기	12.3×40.0	2018	기증		유복반신상
87	소장	012832	초상	肖像	1		조선	18세기	33.0×14.7	2019	구입		유복반신상
88	소장	013681	최명주 초상	崔命柱肖像	1		조선	후기	163.7×94.0	2019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89	소장	013698	전 민영우 초상	傳閔泳愚肖像	1		대한민국	20세기	143.2×75.8	2019	기증		관복전신의좌상
90	소장	013786	홍서봉 초상	洪瑞鳳肖像	1		조선	16세기말 -17세기초	52.0×34.0	2021	기증		유복반신상
91	소장	013787	홍서봉 초상	洪瑞鳳肖像	1		조선	16세기말 -17세기초	51.8×34.2	2021	기증		유복반신상
92	소장	013788	홍서봉 초상	洪瑞鳳肖像	1		조선	18-19세기	76.5×43.0	2021	기증		유복반신상
93	위탁	000001	박세화 초상	朴世和肖像	1		대한제국	1898년	144.5×52.8	1987	위탁		유복전신의좌상
94	위탁	000070	송준 초상	宋駿肖像	3		조선	후기	70.5×40.0 70.5×39.5 71.0×40.0	1999	위탁		관복반신상
95	위탁	000071	오명항 초상	吳命恒肖像	1		조선	1728년	173.5×103.4	1997	위탁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96	위탁	000072	이덕형 초상	李德馨肖像	1		대한제국	1906년	146.7×90.1	1998	위탁		관복전신의좌상
97	위탁	000186	김유 초상	金瑬肖像	1		조선	1716년경	172.0×90.4	2002	위탁	보물	관복전신의좌상
98	위탁	000306	오명항 초상 유지초본	吳命恒肖像 油紙草本	1		조선	18세기 초	40.5×27.5	2006	위탁		관복반신상
99	위탁	000355	오명항 초상	吳命恒肖像	1		조선	18세기	173.5×130.4	2006	위탁		관복전신의좌상
100	위탁	000503	장만 초상	張晩肖像	1		조선	1625년	185.7×99.6	2011	위탁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101	위탁	000504	장만 초상	張晩肖像	1		조선	18세기	100.3×186.5	2011	위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유복전신의좌상
102	위탁	000732	오재순 초상	吳載純肖像	1		조선	후기	82.5×55.2	2014	위탁		관복전신좌상
103	위탁	000759	한천두 초상	韓天斗肖像	1		조선	1613년	181.5×106.4	2018	위탁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104	위탁	000767	류상운 초상	柳尙運肖像	1		조선	17세기 후반	176.7×104.0	2021	위탁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105	위탁	000768	류상운 초상	柳尙運肖像	1		조선	18세기	180.7×86.4	2021	위탁	경기도 유형문화재	관복전신의좌상
106	위탁	000779	조환 초상	趙 肖像	1		조선	1774년	117.5×69.0	2022	위탁		관복반신상
107	위탁	000781	조득영 초상	趙得永肖像	1		조선	1811년	123.0×76.5	2022	위탁		유복반신상
108	위탁	000783	조득영 초상	趙得永肖像	1		조선	1820년	136.5×79.0	2022	위탁		유복반신상
109	위탁	000785	조병현 초상	趙秉鉉肖像	1		조선	1846년	114.5×58.5	2022	위탁		관복반신상
110	위탁	000787	조병현 초상	趙秉鉉肖像	1		조선	1846년	157.5×65.5	2022	위탁		관복전신의좌상

6
연구 과정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20세기 초상 자료도 2점도 목록에 포함시켰다.

01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조선, 1725년
조영석 趙榮
119.5×76.5
조현종(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보물
소장2562

02
조영복 초상 趙榮福肖像
조선, 1725년
진재해 秦再奚
154.0×80.0
조현종(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보물
소장2563

03
유수 초상 柳綏肖像
조선, 1726년
진재해 秦再奚
167.3×90.0
보물
소장10969

04
편지 書簡
조선, 18세기
진재해 秦再奚
33. 0×43.0 33.0×47.0
소장10971

05
월하취적도 月下吹笛圖
조선, 18세기
전 진재해 秦再奚
99.8×56.3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06
연행별장 燕行別章
조선, 1719년
48.0×51.5
조현종(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소장2564

07
화보 畵譜
조선
29.0×21.5
조현종(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소장2603

08
교지 敎旨
조선, 1725년
59.0×82.0
조현종(함안 조씨
참판공파 종중) 기증
소장2769

09
김육 초상 金堉肖像
중국 명, 17세기
전 호병 胡炳
174.5×99.1
실학박물관 소장

10
김육 초상 金堉肖像
중국 명, 1637년
호병 胡炳
119.3×49.8
실학박물관 소장

11
김육 초상 金堉肖像
중국 청, 1644년
맹영광 孟英光
26.6×17.5
실학박물관 소장

12
장만 초상 張晩肖像
조선, 1625년
185.7×99.6
인동 장씨 태상경공파 옥천부원군
문중 위탁
경기도유형문화재
위탁503

13
장만 초상 張晩肖像
조선, 18세기
186.5×100.3
인동 장씨 태상경공파 옥천부원군
문중 위탁
경기도유형문화재
위탁504

14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175.0×93.5
반남 박씨 문순공현석종회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5396

15
박세채 초상 朴世采肖像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179.0×103.0
반남 박씨 문순공현석종회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5397

16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조선, 18세기
150.7×87.5
이정희(경주이씨
회와공파 종회)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4735

17
이인엽 초상 李寅燁肖像
조선, 18세기
81.3×60.5
이정희(경주이씨
회와공파 종회)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4736

18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조선, 1604년
김수운 金水雲
167.0×91.0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19
이광정 초상 李光庭肖像
중국 명, 1609년
원승광 袁承光
164.8×99.7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20
홍경주 초상 洪景舟肖像
조선, 18-19세기
167.0×95.0
홍성원(도열공 홍경주
16대 봉사손)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12288

21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
洪景舟肖像油紙草本
조선, 18-19세기
58.0×88.0, 76.5×96.3,
40.5×97.0
홍성원(도열공 홍경주
16대 봉사손) 기증
경기도유형문화재
소장12290

22
임우 초상 林祐肖像
조선 후기
153.5×89.1
울진 임씨 울릉군파 종중 기증
소장11531

23
이돈상 초상 李敦相肖像
조선 후기
70.3×50.6
이태한(용인 이씨 부사공파
판관공 종손) 기증
소장6900

24
이돈상 초상 유지초본
李敦肖像相油紙草本
조선, 19세기
69.0×49.0
이태한(용인 이씨 부사공파
판관공 종손) 기증
소장6902

25
이돈상 초상 상초묵화
李敦相肖像上綃墨畵
조선, 19세기
86.0×62.5
이태한(용인 이씨 부사공파 판관공
종손) 기증
소장6901

26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조선, 18세기
128.8×58.6
소장6503

27
김중만 초상 金重萬肖像
조선, 1751년 경
42.3×29.5
언양 김씨 언성군파 종중 기증
보물
소장12297

28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조선, 19세기
57.8×50.5
매산 홍직필 후손가 기증
소장12666

29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조선 말기
83.5×44.5
소장6482

30
초상 肖像
조선 말기
117.5×57.5
소장6481

31
초상 肖像
일제강점기, 1915년
채용신 蔡龍臣
97.5×65.5
소장5046

32
기계 유씨 초상 杞溪兪氏肖像
일제강점기, 1913년
102.2×54.2
소장12387

01
Portrait of Jo Youngbok
Joseon Dynasty, 1725
Jo Youngseok
119.5×76.5
Treasure
2562

02
Portrait of Jo Youngbok
Joseon Dynasty, 1725
Jin Jaehae
154.0×80.0
Treasure
2563

03
Portrait of Yu Su
Joseon Dynasty, 1726
Jin Jaehae
167.3×90.0
Treasure
10969

04
Letters
Joseon Dynasty, 18th century
Jin Jaehae
10971

05
Playing a Flute in the Moonlight
Joseon Dynasty, 18th century
Attributed to Jin Jaehae
99.8×56.3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06
Collection of Poems for the
Travel to Yenching
Joseon Dynasty, 1719
48.0×51.5
2564

07
Album of Paintings
Joseon Dynasty
29.0×21.5
2603

08
Royal Edict of Appointment
Joseon Dynasty, 1725
59.0×82.0
2769

09
Portrait of Kim Yuk
Ming Dynasty, 17th century
Attributed to Hu Bing
174.5×99.1
The Museum of Silhak

10
Portrait of Kim Yuk
Ming Dynasty, 1637
Hu Bing
119.3×49.8
The Museum of Silhak

11
Portrait of Kim Yuk
Qing Dynasty, 1644
Meng Yongguang
26.6×17.5
The Museum of Silhak

12
Portrait of Jang Man
Joseon Dynasty, 1625
185.7×99.6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503

13
Portrait of Jang Man
Joseon Dynasty, 18th century
186.5×100.3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504

14
Portrait of Bak Sechae
Joseon Dynasty, late 17th-early
18th century
175.0×93.5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5396

15
Portrait of Bak Sechae
Joseon Dynasty, late 17th-early
18th century
179.0×103.0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5397

16
Portrait of Lee Inyeop
Joseon Dynasty, 18th century
150.7×87.5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4735

17
Portrait of Lee Inyeop
Joseon Dynasty, 18th century
81.3×60.5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4736

18
Portrait of Lee Gwangjeong
Joseon Dynasty, 1604
Kim Soowoon
167.0×91.0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19
Portrait of Lee Gwangjeong
Ming Dynasty, 1609
Yuan Chengguang
164.8×99.7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
Portrait of Hong Gyeongju
Joseon Dynasty, 18th-19th century
167.0×95.0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2288

21
Sketch for the Portrait of
Hong Gyeongju
Joseon Dynasty, 18-19th century
58.0×88.0, 76.5×96.3, 40.5×97.0
Gyeonggi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12290

22
Portrait of Im Woo
late Joseon Dynasty
153.5×89.1
11531

23
Portrait of Lee Donsang
late Joseon Dynasty
70.3×50.6
6900

24
Sketch for the Portrait of Lee
Donsang
Joseon Dynasty, 19th century
69.0×49.0
6902

25
Sketch for Portrait of Lee
Donsang
Joseon Dynasty, 19th century
86×62.5
6901

26
Portrait of Kim Joongman
Joseon Dynasty, 18th century
128.8×58.6
6503

27
Portrait of Kim Joongman
Joseon Dynasty, ca. 1751
42.3×29.5
Treasure
12297

28
Portrait of Song Siyeol
Joseon Dynasty, 19th century
57.8×50.5
12666

29
Portrait of Song Siyeol
late Joseon Dynasty
83.5×44.5
6482

30
Portrait
late Joseon Dynasty
117.5×57.5
6481

31
Portrait
Japanese Colonial Era, 1915
Chae Yongsin
97.5×65.5
5046

32
Portrait of Lady Yu
Japanese Colonial Era, 1913
102.2×54.2
12387

경기도박물관 초상화 기획전
《열에 일곱 七分之儀》
2021년 12월 7일 – 2022년 2월 27일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총괄 : 이영은 | 경기도박물관장 직무대행
기획 : 정윤회
진행 : 김영미, 박본수, 이지희, 정미숙, 정윤회
유물 : 곽창호, 신지섭, 조준호
시설 : 이석주, 정문섭
안내 : 김대경, 김보미, 김소라, 박윤아
보조 : 김지연

그래픽 디자인 : 김뉴
공간 디자인 및 시공 : 디자인 쏨니엄
영상 : 비듀 엔터프라이즈, 시뉴필름
유물 운송 및 설치 : 아트플러스, 코리아트
영상 장비 : 미지아트

전시 출품 협조 : 서울대학교박물관, 실학박물관

주최 및 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Special Exhibition
SEVEN OUT OF TEN
December 7, 2021 – February 27, 2022
Gyeonggi Province Museum Special Exhibition Hall

Supervised by : Lee Young Eun | Acting Director, Gyeonggi Province Museum
Curator : Jung Yunhoe
Curatorial Support : Kim Young Mee, Park Bonsoo, Lee Jihee, Jung Mi Sook, Jung Yunhoe
Collection Management : Kwak Changho, Shin Jiseob, Cho Junho
Facilities : Lee Sukjoo, Jung Moonseob
Reception : Kim Daekyung, Kim Bomi, Kim Sora, Park Yoonah
Assistant : Kim Ji Yeon

Graphic Design : Kimmnew
Space Design : Design Somnium
Filming : Cinew Film, Videu Enterprise
Art Handler : Art Plus, Koreart
Media Installation : Miji Art

in Partnership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d The Museum of Silhak

Hosted and Organized by

경기도박물관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Gyeonggi Province Museum
10 Sanggal-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72 Korea

T. +82(0)31 288 5300
F. +82(0)31 288 5339
E. +82(0)31 288 5339
H. musenet.ggcf.kr

facebook.com/gyeonggiprovincemuseum
instagram.com/gyeonggiprovincemuseum

見於文字者 有七分之心
繪於丹靑者 有七分之儀

- 張繹, 『二程全書』 附錄 「祭文」 中

문자에 드러난 것에는
칠분의 마음이 있고,
그림으로 그려진 것에는
칠분의 용모가 있다.

- 장역, 『이정전서』 부록 「제문」 중

ISBN 978-89-999-0450-9
값 15000원
03650
9 788999 904509